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
: 평촌교회사역을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최희수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Heesoo Choi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HEALTHY CHURCH TRIVING WITH LOVDAL COMMUNITY : A CASE STUDY OF PYEONGCHON CHURCH

Heesoo Choi

Kyeonggi, Korea

Since the COVID-19 pandemic, all of us have encountered various social changes, and Korean churches are no exception. In fact, the reverend in several churches are either not ready for the future ministry or helpless even though they are working hard and making a concern for Korean churches. Generally, people who don't believe God think Korean churches have little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but they expect Korean churches to propose a righteousness to Korean society and care for the weak such as the aged living alone. Thus, so as for the Korean churches to move toward a sound position, they ought to be reliable and responsible for the community

As we know by the Acts 2, the first generation Christians worked with their gifts and devoted their life when there were in need of help. Most of all, they served for their community and it is evaluated as important role for growth of community based on a mutual cooperation and devotion. In case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they proposed a "Ma-ul Mok-hoi", a ministry for neighborhood community as practical plan, not a theoretical one.

Pyung-chon church is a model of devotion for community. It has served for local community and cooperated with the people of the community before there

was an outbreak of the COVID-19. Several leading ministry of Pyung-chon church are "Bongsa-Daehengjin"- intensive volunteer programs, "Sarang-Nanoom Bajahoi"- a flea market for the community, "Agape Senior School"-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aged, and lastly, "Pyung-chon Gyoyuk-Moonhwa center Agape "- a cultural education center. Furthermore, Pyung-chon church proposes a good church model, cooperating with Buheung Community Welfare Centers and Food for the Hungry, as their ministry for the local community.

The Korean church is able to propose a righteousness to the local community and serve it not only by providing its human resources, building spaces, or funds with other several community centers but also by cooperating with them. It is clear that the things are very challenging to the Korean church now, but hopefully they could serve the community by making Pyung-chon church as their example and to be recognized as a trustworthy Protestant church by a Korean society.

Key Word : local community, Pyung-chon church, Bongsa-Daehengjin,
Pyung-chon Gyoyuk-Moonhwa center Agape

국문초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연구
: 평촌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최희수

경기, 대한민국

우리 모두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목회현장의 목회자들은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도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할까, 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하고 있더라도 막연하고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비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교회를 바라고 있다. 그러하기에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 확인되는 초대교회는 은사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함께하는 공동체였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돌보는 교회였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상호 협력과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예장통합 교단의 경우, 마을목회라는 이론이 아닌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촌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된다. 평촌교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평촌교회의 봉사대행진, 사랑나눔 바자회, 아가페 시니어학교,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 사역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대표적인 사역이다. 평촌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기관인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 기아대책과의 연계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모델을 제시한다.

교회가 보유한 인력, 공간, 자금 등의 자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자원을 지역의 다른 기관에 공유하고, 다른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섬길 때,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워져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 한국교회가 당면한 상황과 교회의 현실은 어려운 현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평촌교회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주제어 : 지역사회, 평촌교회, 봉사대행진,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

목차

감사의 글	xi
I. 서론	1
A. 연구동기와 목적	1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II.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	9
A. 교회의 역할	9
1. 교회의 본질	9
2. 초대교회를 통해 확인되는 교회의 역할	13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역할	17
B. 예장통합 교단의 ‘마을목회’	19
1. 마을목회	19
2. 마을목회 실천	22
III.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촌교회	25
A. 지역사회의 이해	25
B. 평촌교회 사역	26
1. 봉사대행진	26
a. 비전 세우기	27
b. 비전 공유	28
c. 비전 선포식	28
2. 사랑나눔 바자회	37
a. 바자회준비	39
b. 개회예배	41

c. 운영	43
d. 수익금 사용	47
3. 아가페 시니어학교	47
a. 목적	48
b. 운영	48
4.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	52
a. 비전	53
b. 문화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섬김	54
C. 지역 기관과의 연계사역	61
1.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계사역	62
a. 부흥종합사회복지관	62
b. 평촌교회와 부흥종합사회복지관	65
c.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계사역	67
2. 기아대책과의 연계사역	70
a. 기아대책	70
b. 희망상자	70
c. 후원계획	71
IV. 평가	82
V. 결론	85
A. 요약	85
B. 제언	86
부록	88
참고문헌	128

감사의 글

먼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함에도 이렇게 드류대학교 목회학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은혜이자 기쁨이요, 감사였습니다.

드류대학교 목회학박사과정을 추천해 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며 지지해 주셨던 림형석 은퇴목사님과 배움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주신 평촌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당회, 김소리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회함에 있어서 항상 저를 향한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영적인 스승이자 존경하는 대구제일교회 박창운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도와주신 권오란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드류대학교 목회학박사과정을 통해 다시금 배움의 소중함과 열정, 학문적 깊이와 통찰력을 길러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 ‘통성경’을 통해 성경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신 조병호 교수님, 논문을 쓰기가 힘들어 중단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늘 곁에서 사랑과 기도로 응원하고 지지해 준 사랑하는 아내 황화평 사모, 아빠를 너무나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랑하는 딸 예나와 아들 예빈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도로 저를 이끌어 주신 어머니와 천국에서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실 아버지, 사랑과 기도로 늘 응원해 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최희수

I. 서론

A. 연구의 동기와 목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변화와 도전은 한국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동시에 이미 한국교회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을 체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회적 변화와 도전에 발맞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와 기관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과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온라인 사역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교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에서는 현장의 목회자들을 위해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라는 책에서 목회자의 고뇌와 신학자의 숙고로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와 행동이 새로운 일상성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모임과 콘퍼런스와 유튜브 방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많은 내용이 사회변화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 한국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기고 있고, 그 파장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성도들의 의식과 교회의 현실 속으로 배어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메뉴얼은 전무하고, 앞으로 급변할 사회를 예상하면서도 막상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현장의 목회자들은 무척 막막하다.”¹

목회현장의 목회자들은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도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준비는 하고 있지만, 답답하고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고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순종하고,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잭 엘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을 강조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며. 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동떨어져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니다. 마지막 분리는 세상 끝 날에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가라지는 쉼아내어 불사르실 때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폐쇄된 집단을 만들어 그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를 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결코 폐쇄된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¹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1), 5.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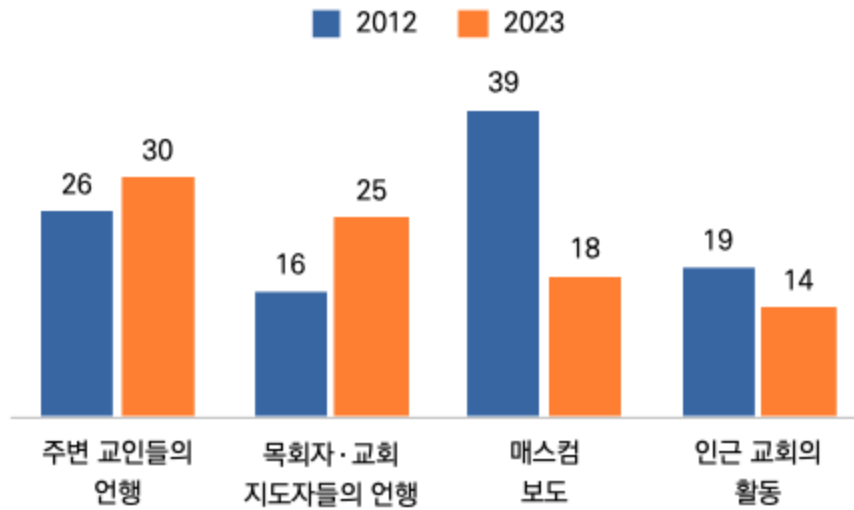
문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의 두 번째,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에 대한 조사결과³에 따르면, 비개신교인들은 개신교의 이미지 형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변 교인들의 언행(30%)’ 그 다음으로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25%)’, 그리고 ‘매스컴 보도(18%)’, ‘인근 교회의 활동(14%)’ 순으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매스컴 보도’,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이 비개신교인들의 개신교의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 최근에는 ‘교인의 언행’이 ‘목회자’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² 자크 엘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문장 역 (서울:도서출판 대장간, 1995), 15.

³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 2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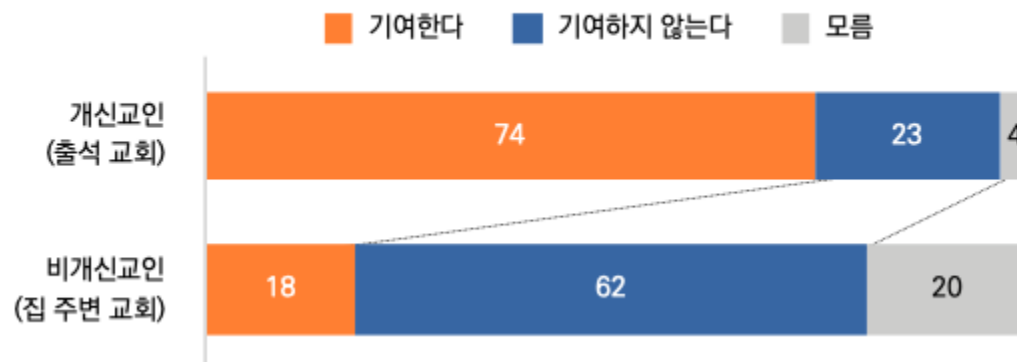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95. [2024. 3. 1 최종 접속]

[그림]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비개신교인, 상위 4위,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은 출석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 반면, 비개신교인들의 경우는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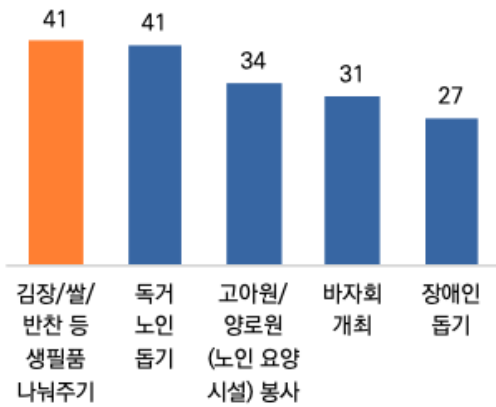
[그림]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기여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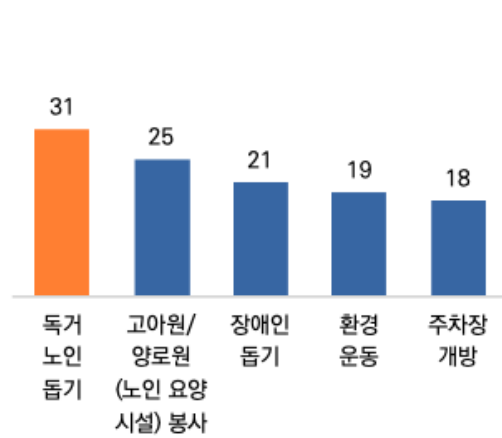
개신교인들은 74%가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라고 응답했지만, 비개신교인들은 18%만 교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라고 응답했다. 주변 교회가 현재

비개신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에는 ‘생필품 나눠주기’와 ‘독거노인돕기’가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비개신교인이 원하는 교회의 사회봉사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바로, ‘독거노인돕기’였다.

[그림] 집 주변 교회가 현재 하고 있는 봉사활동
(비개신교인 중 주변 교회 봉사 인지자, 중복응답,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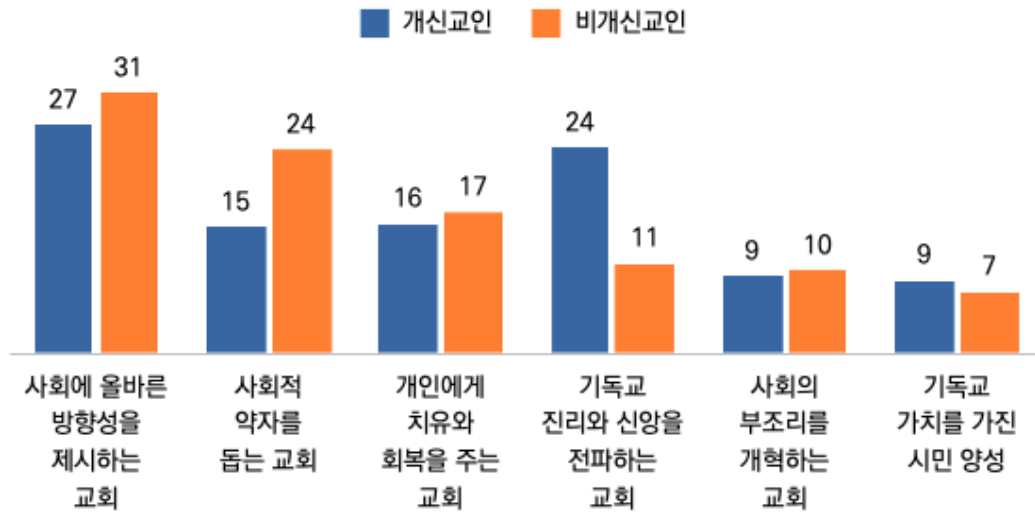


[그림] 집 주변 교회가 해주었으면 하는 봉사활동
(비개신교인, 1+2+3순위, 상위 5위, %)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질문의 연장으로 비개신교인들이 원하는 교회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림] 한국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 (%)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자신의 책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인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래를 위한 한국교회의 준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안팎에서 나타나는 미래변화의 거센 흐름과 침투를 통찰하고,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에 지혜로운 준비를 하면 한국 교회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 가능성이 충분하다.”⁴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한국교회가 비개신교인들의 삶의 현장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회는 더 늦기 전에 다가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⁴ 최윤식,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서울:생명의 말씀사, 2020), 14.

모으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의 비개신교인들은 교인들의 언행, 교회의 활동 등을 통해 한국교회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한다. 비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교회를 바라고 있다.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 있겠지만,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한국교회가 당면한 상황과 교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사역하는 평촌교회는 이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촌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방법과 범위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촌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하기에 ‘연구 동기와 목적’에서도 언급한 교회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II. 교회에 당면한 상황’에서 교회의 기원과 본질, 교회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역할, 평촌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통합교단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회적 대안으로서의 마을목회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교회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회적 대안으로서의
 마을목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촌교회’에서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평촌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평촌교회의 여러사역들(봉사대행진,
 사랑나눔 바자회, 희망상자, 아가페 문화센터,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을 소개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Ⅳ. 평가’와 ‘Ⅴ. 결론’에서는 현재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모델이 되는 평촌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사역과 모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역할

A. 교회의 역할

1. 교회의 본질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고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원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교회란 말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구원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 말하려면, 우리는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가?’ 에 대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한스킹은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 설립되었는가?’ 에 대한 물음에 대해 그의 저서 『교회』 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가톨릭교회는 역사상 예수가 교회를 세웠다고 말한다. 이로써 가톨릭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영적인 권세를 위임받은 구원의 기관임을 강조한다. 또한 교회 제도도 나중에 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가톨릭교회 제도의 정통성을 주장한다. 개신교는 그러나 교회의 기원을 부활절 이전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 사이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로 본다. 그래서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겨난 피조물로 정의된다. 개신교에서의 이러한 정의를 통해 강조하려는 것은 분명하다. 교회의 본질적인 차원은 분명 예수에게 근거되어 있지만, 교회 제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교회에는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원도 있지만, 늘 개혁되어야 하는 차원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급진적인 계몽주의 신학자들은 예수가 선포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주장함으로써 교회가 예수에 의해 직접 설립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⁵

그러면서 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약성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ecclesia)로 부른다.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소집된 모임’이란 뜻으로 고대 도시국가 아고라의 ‘민중회의’에서 비롯되었다. 현상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는 여지없이 소집된 성도들의 모임이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데 있다. 신약성서는 교회의 이러한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면서도, 동시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부른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동일성을 경계하자는 것이다.”⁶

웨이인 그루렘 또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는다.

⁵ 한스 쾅, 『교회』 정지런 역 (서울:한들출판사, 2007), XXXX.

⁶ Ibid., XXXXi.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을 자신에게 부르심으로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 그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셨다(마 16:18)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예배하는 모임이 되게 하신 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약의 모형의 연속일 뿐이다.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라고 부른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 백성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볼 때, 교회는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⁷

게르하르트 로핑스는 그의 저서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의 머리말에서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래 전부터 교회가, 사실인 즉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모아 하느님 백성을 삼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으로 말하면, 예수에 의해 모여지고 예수의 죽음을 통해 기록해진 하느님 백성의 삶을 살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볼 때, 역사상 예수에게서 무슨 정식의 교회 창설 행위를 찾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가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모았으며 참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했더냐를 묻는다는 것은 더없이 뜻있는 일입니다. 정작 이

⁷ 웨인 그루뎀,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하』 노진준 역 (서울:은성출판사, 2009), 22-23.

때야 말로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겠느냐 라는, 필경 단연 중요한 물음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⁸

팀 켈러는 ‘부르심을 받은 이들’ 이 교회라고 말한다.

“신약성경의 목회서신들에서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칼레오(Kaleo)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롬 8:30, 고전 1:9). 온 세상에 거룩한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라고 부를 때도 쓰인다(벧전 2:9-10).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부르시기도 한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크리스천 공동체와도 친교를 맺게 하는 초대다(고전 1:9, 엡 1:1-4, 골 3:15). 실은, 교회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ekklesia)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의미한다”⁹

존 스토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자들 가운데 기괴한 변종 즉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unchurched Christian)은 아무도 없으리라 믿는다. 신약성경은 그러한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중에 생각해 내신 것이 아니다. 교회는 역사의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다. 영원한 과거에 마음속에 품으셨고 역사 속에서

⁸ 게르하르트 로핑크,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역 (서울:분도출판사, 2005), 5.

⁹ 팀 켈러, 『일과 영성』 최중훈 역 (서울:두란노출판사, 2013), 5.

실행하시며, 영원한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고립된 개인들을 구원하여 우리의 고독을 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 즉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⁰

목회자를 포함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 받은 모임,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 받은 목적 즉 역할이 분명히 있다. 교회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하고 감당해야 한다.

2. 초대교회(사도행전 2장)를 통해 확인되는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의 부름 받음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게 된다.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역할을 살펴 봄으로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행 2:1)” 로 시작한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천 명의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된다.

¹⁰ 존 스토틀, 『살아 있는 교회』 신현기 역 (서울:IVP 출판사, 2007), 24.

회심한 자들의 수가 더해지고 이로서 초대교회는 시작된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¹¹

사도행전 2장을 통해 확인되는 초대교회는 은사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함께 하는 공동체였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대그룹으로 성전에서 모였다면, 가정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존 스토트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보는 교회’로 표현하면서, 살아 있는 교회의 표지 중 하나가 바로, ‘교제’라고 말한다.

“살아 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배움이라면, 두 번째 표지는

¹¹ 사도행전 2장 43-47절

교제(fellowship)다. "그들이... 교제 ... 하기를 힘쓰니라."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koinonia)인데,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적인(koinos) 삶으로서 우리가 신자로서 공유하는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두 가지 상보적인 진리, 즉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share in)과 함께 나누는 것(share out) 둘 다를 증거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는 바로 이 후자에 강조점을 둔다."¹²

그는 돌보는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도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전적인 가난으로 부름받은 적이 없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구절이 주는 도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했는데,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므로 이는 그리 놀랄 만한일이 아니다(갈 5:22). 특별히 그들은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보살폈고, 자신의 재산을 그들과 공유했다. 이러한 자발적인 기독교적 나눔의 원리는 분명히 영속적인 것이다. UN 통계에 따르면, 빈곤 인구(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는 10억 명 가량이다. 기아와 기아 관련원인으로 죽는 사람은 하루 평균 24,000명 가량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를 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다. 성령은 자기 백성에게 인정 어린 사회적 양심을 주신다. 그러므로 풍족한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검소한 생활 방식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세계의 거시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교회는 돌보는 교회(caring church)다. 관대함은 항상 하나님

¹² 존 스토틀, 『살아 있는 교회』 신현기 역 (서울:IVP 출판사, 2007), 31.

백성의 특성이었다. 우리의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교회 역시 너그러워야 한다.”¹³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과 닮아 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¹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전도) 사역,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봉사(공훈) 사역을 행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세 가지는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교회는 마땅히 교육, 선교, 봉사, 이 세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역은 교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역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 확인되는 교회의 역할이다.

¹³ Ibid., 33-34.

¹⁴ 마태복음 9장 35-36절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상호 협력과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한 부분에 봉사하고 지원하여 사랑과 관심을 전달해야 한다. 식량 나눔, 재난 구호,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교육 프로그램, 문화 활동, 예술 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발전과 교류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교회로서의 역할이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적인 지지와 위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교회를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웨일러 매튜스는 이미 오래 전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었는지, 교회가 얼마나 이타적인지에 대해 말했다. 그는 교회가 사회봉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가 이러한 사회봉사를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교회는 그 어떤 사회기관들보다 뛰어나다. 따라서 교회는 많은 사회집단이 지니고 있는 이타주의의 상징적 조직체이다. 교회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이타주의는 작용하지 못했거나

표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교회 없는 사회에서 사회봉사기관들이 설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교회가 출범시킨 제도들이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 자체가 이타적인 제도들을 갖추려면 먼저 시민들이 이타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봉사기관들과 교회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교회가 선한 뜻을 지닌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이타주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존하듯이, 사회봉사기관들은 성직자처럼 행동하지 않고도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사실 사회봉사기관들은 도덕적 심판의 내용과 그 한계들을 이미 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¹⁵

오늘날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교회와 지역사회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지역 비영리 기관, 정부 기관, 사회적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보유한 자원(인력, 공간, 자금 등)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그 반대로 다른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와 다른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한다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지역 기관과 함께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교류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¹⁵ 웨일러 매튜스, 『예수 운동과 혁명』 박현덕 역 (안양:도서출판 대장간, 1993), 31.

B. 예장통합 교단의 ‘마을목회’

필자가 속한 예장통합 교단에서는 계속되는 교인수 감소에 따라 소형교회 뿐만 아니라 중대형 교회에서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들을 마련했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 교회들의 많은 사례들을 모아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노력한 내용을 ‘마을목회’로 담아내게 되었다. 마을목회는 목회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 목회적 노력을 신학자들이 정리하였기에 이론적인 방안이 아니라 실천적인 방안이다.

‘마을목회’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1. 마을목회

노영상 교수는 “ ‘마을교회’를 왜 하여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교인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현실이다. 소형교회들을 비롯한 중대형 교회들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자구책들을 마련해 왔고 교단은 총회 단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깊이 검토해 왔다. 교회의 생존을 위한 노력들을

‘마을목회’로 수렴하였다. 마을목회는 교회의 생존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하는 평가의 잣대로 보려 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시각에서 이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을목회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다. 마을목회는 사랑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교회를 지향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실천을 통해 표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을목회는 오늘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너무 개인주의적 삶에 익숙해 있다. 공동체를 상실한 채 서로 파편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마을목회는 공동체성을 강화한다. 마을목회는 개인의 자유에 역점을 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태, 복지, 문화, 경제 등의 모든 분야의 위기 극복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마을목회는 목회자 혼자만 하는 목회가 아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역량을 집약하여 하는 목회, 평신도 사역에의 강조가 바로, 마을목회이다.”¹⁶

예장통합 교단은 102회 총회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정하였다. 102회 최기학 총회장은 예장통합총회 정책 과제로서의 ‘마을목회’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201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년간의 총회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요 3:1617)로 정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우리의 마을 깊숙이 들어가 마을을 새롭게 하며 행복하게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주제다. 이어 총회는 이 주제에 따른 정책 과제로서 '마을목회'를 정하고 이 목표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중심적 목회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

¹⁶ 노영상, 『마을교회 마을목회』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8-11.

것 같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선교적 정체성을 갖는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세상과 마을을 향해 열린 공동체로서, 우리는 마을이 선교의 공간이 되며 마을주민이 모두 잠재적 교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마을목회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는 마을주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섬기는 기관으로, 마을주민과 더불어 살며 마을을 향해 열린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마을주민을 대상화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교회의 사역에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¹⁷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는 교회와 가장 많은 접촉점을 갖는 영역 중 하나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와 지역사회는 많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큰 지를 물으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 22:37-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한일서 4:19).” 고 기술하였다. 같은 마을, 같은 지역에 사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이다. 그러하기에 마을목회는 공동체적 참여를 강조하고 공생적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이러한 마을목회는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바람직한 목회다.

¹⁷ Ibid., 2-3.

2. 마을목회 실천

마을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의 마을 만들기 사역이 필요하다. 마을 만들기 사역은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불신,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마을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선되는 것은 바로, 지역 중심의 목회 철학이다. 조용훈은 담임목사의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강조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불신이다. 한국교회는 자기성장과 자기만족만 추구하는 이기적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사회 안에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교회의 마을 만들기 사역이야말로 탈립없이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지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한다면 비록 작은 교회라도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지역 교회가 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을과 교회 그리고 선교의 상관성에 대해 담임목사가 분명한 목회 철학을 지녀야 한다. 새롬교회의 경우 담임목사인 이원돈 목사는 한국교회가 닥친 위기의 원인을 개교회주의와 성장주의로 진단하면서, 교회가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교회가 주축이 된 마을 만들기관 신앙적 가치를 토대로 지역의 교육, 복지, 문화를 통합하는 생명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다.”¹⁸

지역사회와의 효과적인 소통이야말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성패요, 마을목회 실천의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마을 만들기 운동도, 마을목회도 불가능하다. 그러하기에 지역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 마을목회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지역사회, 마을을 섬기는데 목적이 있다. 교회성장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마을목회는 교회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함께 성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을목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지역사회, 마을의 연대와 협력, 네트워킹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또한 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 조용훈은 연대와 협력 그리고 네트워킹을 강조한다.

“어떤 지역 교회도 자신들만의 힘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에 성공할 수 없다. 마을 만들기에 성공하려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해야만 한다. 성공한 마을 만들기 운동들은 대부분 지자체나 지역의 각종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지역주민이 힘을 모은 결과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부일 뿐이며 그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비록 교단을 초월한 지역 교회들 전체가 연합한다 해도 마을 만들기의 성공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마을 만들기에 관심하는 지역 교회는 반드시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대하고

¹⁸ 조용훈,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서울:도서출판 동연, 2017), 40.

협력해야만 한다.”¹⁹

¹⁹ Ibid., 43-44.

Ⅲ.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촌교회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본질과 역할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구이다. 평촌교회는 코로나 19 이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했다. 이러한 평촌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구에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 지역사회(안양, 의왕지역)의 이해

평촌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중 하나로 평촌교회는 바로, 평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평촌 지역은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도시 내 신도시’이다. 평촌 신도시의 범위는 안양시 동안구 전체를 포괄하는데, 안양시 동안구는 인구가 312,280명이며, 안양시 인구의 약 57.4%, 가구수는 124,934세대로 안양시 전체의 54.9%를 차지하고 있다.²⁰ 평촌 신도시의 중심부에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이 있으며, 두 역 사이에 안양시청, 동안구청 등 행정관청이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주거 지역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주거 지역 주변으로 학교와

²⁰ <https://www.anyang.go.kr/dongan/contents.do?key=1092>. [2024. 3. 1 최종 접속]

학원 등 다양한 교육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평촌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잘 갖추어진 교육 환경을 들 수 있다.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기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모여든 젊은 부모 세대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바로, 평촌 지역이다.

평촌교회는 행정 구역상 안양시에 속하지만, 의왕시와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교회 본 건물의 일부는 의왕시에 속해 있다. 그래서 교인들 대부분이 안양과 의왕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인근 지역인 군포, 과천, 광명, 서울, 성남, 용인, 시흥에도 교인들이 분포하고 있다. 평촌교회는 지금의 자리(안양시 평촌동 134-3, 동안구 흥안대로 390)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평촌(平村)’은 한자어로 ‘평평한 마을’ 이고, 한글로는 ‘벌말’ 이다. ‘벌말’은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을 뜻하는 벌’ 과 ‘마을’ 의 준말인 ‘말’ 이 합쳐진 말이다. ‘넓고 평평한 마을’ 이 바로, ‘벌말’ 의 의미이다. 지금은 신도시이지만, 개발 전인 80년대까지는 논밭이었던 지역이 바로, 평촌교회가 위치하는 평촌 지역이다.

B. 평촌교회 사역

필자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평촌교회는 필자가 속한 예장통합교단 차원에서 마을목회를 실천하기 이전부터 지역사회(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은퇴한 림형석 담임목사는 평촌교회에서의 19여년의 목회에서 항상 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그런 고민, 목회철학이 평촌교회 사역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어 소개하고자 하는 평촌교회의 사역들(대행진, 바자회, 시니어학교, 아가페 문화센터, 부흥복지관 등)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의 바람직한 교회 모델을 제시한다.

1. 봉사대행진

평촌교회 50년사 화보집을 보면 대행진 사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평촌교회는 2011년 1월에 감격스런 교육문화센터 입당 예배를 드렸으나, 3년 여에 걸친 건축으로 인해 진도 사역이 거의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2011년 연말이 되었을 때도 그 해 출석 인원이 50명밖에 늘지 않았다. 립형석 목사는 기도하는 중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며 성장하였던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기도와 전도, 예배와 말씀, 봉사와 선교 등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2012년 전도대행진으로 시작된 대행진 사역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교회사역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매년 가을 평촌교회가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에는 전국에서 온 천 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들에게 목회사역의 새로운 비전과 영감을 심어주고 있다.”²¹

a. 비전 세우기

평촌교회는 대행진 사역(전도, 기도, 예배, 말씀 등)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²¹ 평촌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평촌교회 50년사 화보집』 (서울:매거진 아가페, 2015), 53.

회년²²을 선포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 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를 섬기고자 정책당회를 통해 당회가 비전을 나누고 ‘봉사대행진’ 사역을 시행하기로 결의하였다.

b. 비전 공유

정책당회를 통해 결의된 ‘봉사대행진’ 은 성도들이 하나되어 함께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다. 그러하기에 담임목사는 주일예배 설교²³를 통해 정책당회에서 결의된 ‘봉사대행진’ 의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봉사대행진’ 사역에 전교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였다. 담임목사의 설교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 라는 ‘봉사대행진’ 의 주제를 담고 있는 설교였다. 매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해 ‘봉사대행진’ 의 비전을 공감하고 하나되어 함께할 수 있었다.

c. 비전 선포식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해 비전을 공유한 성도들이 주일 오후예배 시간에 비전선포식을 통하여 봉사대행진의 시작을 알렸다. 비전 선포식은 4개월이라는 짧은

²² ” 50년은 매우 의미있는 해이다. 성경 레위기 25장에 의하면 안식년을 일곱 번 지나고 다음해인 50년째는 회년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 회년은 땅도 쉬고, 소유물도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해이다.”

²³ 부록에 수록된 봉사대행진 담임목사 설교 참고.

않은 기간 동안 진행될 ‘봉사대행진’의 대장정에 오르며,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결단하는 일종의 출정식이다. 비전 선포식을 통하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와 도전을 받게 되었다.

봉사대행진 선포식

항목	내용	비고
1. 목적 및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대행진을 시작하며 온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며 동기를 부여한다. - 봉사를 위한 전반기 4개월간의 대장정에 오르며 평촌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결단하는 출정식의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한다. 	
2. 일시	2015. 2. 1(주일) 오후 4:00 ~ 5:30	
3. 장소	본당 영광홀	
4. 대상	평촌교회 온 성도	
5. 전체적인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양으로 예배를 연 다음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눔과 섬김의 삶에 대해 도전하도록 한다. - 이어서 봉사대행진 전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전반기 동안 진행되는 사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며 대행진 팀장들이 특송을 통하여 헌신을 다짐한다. 이어서 교구별로 봉사계획과 구호 제창에 이어 헌신서약과 파송선언 후 합심기도로 마음을 모으며 마무리한다. 	
6. 준비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대행진 전체 프리젠테이션 - 교구별 구호 	교구별 사전 모임을 위한 장소 협의
7. 고려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구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 - 성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순서 	
8. 기타		

봉사대행진 선포식

시간	내용	세부사항	담당자	비고
~4:00	준비		인도 : 남상철장로	위원장
4:00~4:10	찬양			
4:10~13	기도		윤영복장로	부장
4:13~17	성경봉독	요5:1-16	지상운집사	특기시설팀장
4:17~37	설교	"베데스다에서 성전으로"	임승호목사	
4:37~47	대행진 전체 P.T.	봉사대행진의 전체적인 개요 및 팀별 사역 소개	하성용집사	서기
4:47~50	대행진 팀장 특송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성경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시어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봉사할 때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심방할 때에 하늘나라 소망 허락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청소할 때에 우리 맘과 영혼 정케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집을 고칠 때 주님께서 반석 되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결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하소서 아멘		
4:50~5:14	교구별 봉사계획 나눔 및 구호	교구별 지정된 자리, 계획 소개 및 구호(3분 × 8개 교구)		
5:14~17	헌신서약	나는 50주년을 맞아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살기로 회년을 선포하고자 실시하는 봉사대행진에 아래와 같이 참여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하 여 약속합니다.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계정된 목적임을 알아 말씀과 기도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공예배와 기도회에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감시 맡겨주신 것이라 고백하는 정지 기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자이신 그리스도 를 본받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1일 서약자 유경홍, 정순남	유경홍집사 정순남집사	팀장
5:17~19	봉사대행진 파송선언 및 구호제창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빛진 마음을 가지고 살 기로 회년을 선포하고자 소망하는 평촌교회 성도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 송합니다. 섬길의 향으로 오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 다." 2015년 2월 1일 살므로 회년을 선포하자 - 영적생활로 선포하자 / 살므로 회년을 선포하자 - 봉사생활로 선포하자 / 살므로 회년을 선포하자 - 전도생활로 선포하자	담임목사님	
5:19~24	합심기도	영적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로 회년을 선포하고자 나아가는 우리의 앞 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다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5:24~28	파송찬양 : '기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주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28~	축도			

d. 봉사대행진 개요²⁴

2015년 봉사대행진

I. 주제 : 세상을 섬기는 교회

표어 : 삶으로 회년을 선포하자

II. 기간 : 2월 1일 ~ 5월 31일(전반기), 9월 7일 ~ 12월 15일(후반기)

III. 목표

1. 영적생활로 회년을 선포하자

- ① 예배생활 - 주일예배, 찬양예배, 기도회(수요, 금요, 새벽) 참석.
- ② 경건생활 - 매일 기도와 말씀봉독(년 1회 이상 성경통독)

2. 봉사생활로 회년을 선포하자

- ① 물질로 봉사(만원 헌금)
- ② 몸으로 봉사(개인별 / 또는 구역별 봉사)

3. 전도생활로 회년을 선포하자 (1명이상 전도하여 5000명 예배출석)

IV. 봉사생활의 구분 (4가지 부문)

부문1 "교구 돌봄 사역"

: 교구 내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파악하여 구역을 중심으로 돌보, 경제적 여건이나 생활형편 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관심과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보는 사역

사역	봉사내용
노인돌봄	- 교구별 구역을 중심으로 어르신들과 자매결연, 정기적인 방문 - 청소, 빨래, 기타 생활형편 등을 돌보는 사역 - 말벗 서비스(주 1회).
빈천배달	- 독거노인, 기초생활대상자, 장애인, 한 부모 / 조손가정 등 - 1주일 혹은 격주로. - 필요시 라면이나 우유 등 제공
김장나누기	- 교구 내 어려운 이들 및 월동준비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 대상 - 교회적으로 김장을 하고 배분하는 것은 교구별로 한다.
심방사역	- 환우, 슬픔 당한 가정,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등성도간 사랑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돌본다.
전도대상자 돌봄사역	- 영혼구원사역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바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대상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도록 한다. - 봉사의 개념을 담아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한다(빈천이나 선물 등).

²⁴ 평촌교회 2015년을 위한 정책당회 자료, 1-6.

부문2 "기관 및 시설방문 봉사 사역"

: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는 나눔과 섬김의 소중함을 경험하도록 하는 사역

기관		봉사내용
종합복지관	비산	- 동안구 임곡로 74(비산1동 510-5, 성결 신학원) 466-5936 - 가정방문, 가사보조, 병원동행, 밀반찬배달, 의료봉사, 이·미용봉사, 전문강사, 수지침 봉사, 식당보조, 밀반찬 조리, 홍보, 전산입력, 서류정리, 환경정리, 행사보조
	부흥	- 동안구 달안로 39(부흥동, 장로교복지재단) 382-7557 - 초등학교 및 청소년(중고등학생) 학습지도, 경로식당 조리 및 배식봉사, 설날, 추석 명절 행사 지원 봉사, 김장페스티벌, 걷기대회, 가을축제 행사지원 봉사, 의료지원봉사, 취미활동봉사(풍선아트, 사진촬영, 동영상제작 등) - 어린이 합창지도 :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로 하여금 합창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
	율목	만안구 병목안로 130-166(안양9동, 감리회복지) 466-9125
	굿네이버스	동안구 관양2동 1474-8 팬빌딩 2층 426-1391
	주몽	군포시 산본동 1120(한기장복지재단) 398-4781
	가야	군포시 변영로 331(산본동, YMCA) 395-4894 교육, 의료, 이미용, 말벗, 청소 등 지역아동센터, 가족기능강화, 교육문화, 지역사회보호사업 등
장애인	관악	만안구 경수대로 1132(안양동) 472-7774 - 사단법인 성민원(기독교),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 목욕, 밀반찬, 이미용, 프로그램보조, 학습지도, 식당보조, 환경미화 등
	수리	만안구 냉천로 39(안양동, 기독교) 465-0950 - 2003년 성결대, 2012년 사회복지법인 돕는 사람들, - 급식보조, 밀반찬, 목욕, 이미용, 의료, 활동보조
	사랑의집	만안구 양화로 105-39(박달동) 448-8595 - 지적장애인, 기독교정신 하에 1960년 충북 증원군에서 시작, - 이미용, 목욕, 주방보조, 청소, 프로그램봉사, 공연, 전기설비, 의료, 레크레이션, 음악미술치료
	양지의집	군포시 한세로 70(당정동) 451-8799 사회복지법인 씨피재활원, 일상생활보조, 목욕, 의료, 미용, 나들이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쁨이생존스텝 만안구 현충로 52-7, 301호(안양동) 466-5345 ◦ 관악공동생활가정 만안구 예술공원로 59, 104-102(안양동) 472-7774 ◦ 희망복지홈 만안구 박달로 498-28, 105-108(안양동) 468-7004 ◦ 장애인심부름센터 만안구 냉천로 44(안양동) 469-9955 ◦ 수화통역센터 만안구 안양로 384-44(안양동) 466-1123 ◦ 장애인재활작업장 의왕시 고산로 25(고천동) 456-6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의왕시 오천천로 7(시청별관 1층) 455-5613 ◦ 수화통역센터 의왕시 경수대로 236(고천동) 459-8595
노인	아름채	의왕시 문화공원로(고천동) 47 427-0580 - 천주교수원교구, 집수리, 도배, 조리, 이미용, 교육, 공연, 상담 등
	만안구노인복지회관	만안구 냉천로 153-15(안양동) 468-9797
	동안구노인복지회관	동안구 동안로 149(비산동) 389-5738
	안양노인전문요양원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56(석수동-설원복지재단) 471-3792 - 말벗, 청소, 식사수발, 목욕봉사, 조리보조, 식사배식, 설거지, 주말산책 등 - 부설 주간보호센터(28) 석수1동 238-4 471-3792 주-야간, 주말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 고산로 223(당동, 가야대역) 399-2270
	평화노인주간보호센터	비산1동 510 449-2599 주간보호
아동	안양의집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32(석수동 238-23) 471-2391 - 환경정리, 청소, 제초, 조리, 학습 등
	평화의집	동안구 임곡로 60(비산동, 기독교) 449-2596 - 학습지도, 컴퓨터, 레크리에이션, 영어, 비즈, 이미용봉사, 실내외 청소, 세탁, 주방보조 등
	좋은집	만안구 예술공원로 52-46(안양동, 기독교) 472-8848 -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복지시설, 청소, 세탁, 설거지, 상담, 이미용, 소독, 페인트, 학습 및 특기지도, 조정, 전기 등
	경기남부아동 일시보호소	동안구 경수대로 883-70(비산동 570-9) 445-7188 - 동방사회복지회, 기독교 정신 바탕, 350여명의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 목욕, 청소, 신생아돌보기 등 다양
	명륜보육원	의왕시 원터아랫길 70(청계동) 426-1996
특수	노숙인쉼터	안양역 앞 노숙인 대상으로 하는 급식사역 안승영목사

- 풍선아트, 종이접기 등 봉사를 위해 쉽게 익힐 수 있는 스킬들과 관련한 과목을 누구나 학교에 개설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부문3 "지역사회 섬김사역"

: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아가 섬기고 돌보는 사역

사역	봉사내용
사랑의 쌀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도들에게 주머니를 제작하여 나눠줌으로써 사랑의 쌀독을 채우도록 한다. - 사랑의 쌀독은 어느정도 채워지는지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한다. - 봉사자가 책으로 담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가져가도록 한다. - 계절별로 옷가지들을 정리해 놓아 필요시 가져가도록 한다. - 장소 : 1층 출입구, 예사랑부 앞 텐트설치 등 논의 필요
지역 경로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구 내에 있는 지역 경로당 및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구역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역
교회 내 약한 교회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노회 내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세우는 사역 - 전도부를 중심으로 연약한 교회에 실질적인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 일단 동부시찰 내에 있는 교회를 우선적으로 섬긴다. - ex) 주일 예배 함께 드리주기
지역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한 주말에 쓰레기봉투 지급한 후 돌아가는 길에 채워갈 수 있도록 - 중앙공원이나 학의천 등을 중심으로 - 조끼, 어깨띠, 모자 등을 준비해서 착용 - 가족, 구역, 선교회 등으로 팀을 이뤄 교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이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 네일아트, 안마 등 - 이미용선교회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며,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이들의 경우 간단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호스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종을 앞두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동행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 - 생물호스피스선교회를 중심으로 팀 구성하여 운영 - 가까운 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병원 연계
도배장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손동 일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비가 필요한 가정을 돕는다. - 도배, 장판을 비롯한 전기, 가스, 보일러, 목조, 싱크대, 페인트 등 교회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한다.

부문4 "교회섬김사역"

: 봉사의 해를 맞아 성도들로 하여금 1인 1사역을 원칙으로 모두가 한가지 이상씩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 내의 사역

사역	봉사내용
아가페사역	도서관, 독서실, 카페, 안내, 놀이방, 문화교실
청소	교회 본당 및 아가페 - 수요일과 토요일
경로대학	어르신 섬김 - 매주 화요일
소망부	장애인 사역 - 매일 첫째, 셋째 주 토요일
바나바	새가족 돌봄 사역
교회학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포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예사랑부(장애인), 어와나, 중등부, 고등부, 야기학교
목양지원	
전산/방송/영상	

차량	
	교회지역지원서 참고

- 기타

구 분	세 부 항 목
현열	- 고난주간에 현열차를 불러 교회적으로 함께 현열에 동참한다.
2만원의 행복 (단기지역)	- 구역별로 2만원의 종자돈을 지급하여 가장 알차게 섬기는 미션 - 영혼사랑 초청 잔치에 맞추어서 시행한다. - 필요한 것을 교회 사역으로 흡수하여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역 보고서 및 개인 소감문 적어내게 하여 시상
지역병원 연계사업	- 생병원과 연계한 사업 - 병촌교회 성도들 중 개인 의사들과 연계사업

V. 전반기 봉사대행진 사역 지침

1. 전 교인이 새해에는 1인 1사역을 하도록 유도한다. (12월 중 작성)
2. 내년도 봉사대행진을 위한 사역팀을 조직하고 준비모임을 갖는다.
: 복지 시설팀, 사랑의 쌀독팀, 경로당 지원팀, 이미용 사역팀, 지역청소팀, 도배장판팀, 호스피스팀, 병원 선교팀, 야가페 사역팀, 차량 지원팀, 영상 사역팀, 강단 장식팀 등
3. 희년의 선포
: 1월 첫 주일 희년선포주일로 지키며, 오후 찬양 예배시 희년감사예배를 드린다. (동영상제작, 축하순서)
4. 강단 전면 장식
: 1월 첫 주일까지 예수님의 성김을 형상화한 장식을 한대(온도계 대신 숫자만 게시하며, 온도계는 로비에 배치한다).
5. 1월 중으로 봉사대행진 사역 작정을 한다.
: 영적생활, 봉사활동, 전도생활
6. 1월 중으로 봉사헌금(만 원 이상)을 작성하여 모금한다.
7. 주일예배 시작 시에 세례와 봉사활동을 알리는 멘트나 동영상을 상영한다.
8. 주일예배 변경사항
 - ① 예배시간변경 : 1부/ 오전 7:0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4:30
 - ② 봉헌을 설교 전에 하며, 설교 후 기도를 없앤다(저녁예배와 기도회 시에 기도시간 삽입).
9. 영혼사랑 초청 잔치 (출석목표 - 장년 5,000명, 교회학교 1,500명)
 - ① 전도 집회 및 기도운동 (1명 전도운동전개)
 - ② 각 교구별 전략회의 및 기도회
 - ③ 교구 전도대 운영
 - ④ 교구 출석관리 시스템
 - ⑤ 전도자, 구역장, 교구장과의 연대

VI. 조직 - 봉사대행진 사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의 조직을 운영한다.

1. 교구 사역부

: 교구목사와 지역장, 구역장, 교구총무, 목회지원팀이 교구 돌봄 사역을 감당한다.

2. 사역 운영부

: 임승호목사와 봉사복지위원장이 주관하며, 구역의 봉사사역을 돕기 위한 복지시설팀, 사랑의 쌀독팀, 경로당지원팀, 이미용사역팀, 지역청소팀, 도배장판팀, 호스피스팀, 병원선교팀, 아가페사역팀, 차량지원팀 등을 운영하며 교회 내 사역들(경로대학, 예사랑부, 소망부, 바나바사역, 교회학교 등)과 협조한다.

3. 사역 지원부

: 봉사대행진 사역을 위해 아래와 같은 별도 사역팀을 운영한다.

- ① 봉사자 관리팀 - 봉사자의 지원유도와 훈련사역 담당
: 교구장, 총무, 사역 운영부 각 팀장, 교회 사역팀장 및 봉사자훈련 전문가들
- ② 영상 사역팀 - 봉사활동 촬영, 동영상 제작, 예배 시 영상사역 담당 (지도, 부장, 직원-전임, 파트)
- ③ 강단 장식팀 - 새해 전까지 강단 전면 벽을 디자인하고, 장식한다. (책임자: 예배위원회 지도목사 & 위원장)

• 밑줄 친 팀은 신설부서

2. 사랑나눔 바자회²⁵

평촌교회의 바자회는 한국교회가 알아주고 인정하는 바자회라는 자부심을 가진 바자회이다. 평촌교회 바자회는 1992년 맹인들의 개안 수술비를 마련하고, 소년소녀 가장의 월동준비를 돕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사랑나눔 바자회는 코로나 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 3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직접 산지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손질하고, 만들고, 팔고, 배달하는 일까지 직접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사랑과 땀이 배어 있는 바자회이다. 기독교신문 기자인 김중희는 평촌교회 바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²⁵ 평촌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평촌교회 50년사 화보집』 (서울:매거진 아가페, 2015), 82.

“평촌교회의 바자회는 교회에서 벌이는 일반적인 개념의 일회성 바자회라기 보다는, 지금도 시골에서 성행하는 '3일장' 정도의 대규모 재래시장 개념에 가깝다. 게다가 그것을 교회의 핵심적 전도전략으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일년에 봄, 가을 두차례씩 3일간 벌이는 바자회의 방문객은 최소 7만명이 넘으며 순수익도 1억4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에 이를 정도이다.”²⁶

당시 담임목사였던姑 고준규 목사는 김종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평촌교회 바자회의 취지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바자회를 통해 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마당을 밟게 합니다. 지역 특성상 바자회는 불신자들에게 마음의 자물쇠를 스스로 열게 합니다. 바자회를 통해 교인들간의 단결심과 협동심을 유발시킵니다. 바자회를 통해 교인들 각자가 ‘나도 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전도에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 결과로 소속감이 약하거나 소극적인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평소에 이웃과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못하던 교인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교인들간의 일체감을 조성해 주는 등 교회 내적인 효과에 함께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교회 이미지를 제고하며, 지역주민들에게 ‘평촌교회 하면 바자회, 바자회 하면 평촌교회’ 라는 생각을 각인시키는 등 대외 홍보면에서 효과를 얻습니다.”

²⁶ 김종희,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6>. [2024. 3. 11 최종 접속]

a. 바자회 준비 - 바자회 준비 매뉴얼 및 조직

평촌교회 바자회는 바자회 준비 매뉴얼에 따라 바자회 개최 2개월 전부터 기획팀 모임을 시작으로 홍보까지 철저하게 준비한다.

※ 바자회 준비 매뉴얼

1. 9월 초:

- 기획팀 모임 통해서 바자회 준비 일정 확인.
- 후보 광고 시작
- 선교회별/교구별 품목 조정 시작.

2. 9월 중순:

- 애드벌룬 광고 심의 신청(안양시청 건축과 건축경관팀)
: 서류준비는 신언엽집사
- ※ 시청 심의 통과 -> 구청 허가 신청
시청 건축경관팀(031-8045-2421) 강승희주무관/ chunsa007@korea.kr로
서류 보냄.
- ※ 심의 신청 시 건물 안전진단 확인서도 필요 -> 전문업체 의뢰해야 함.
- 바자회 전단지, 티켓, 달란트, 식권, 초청장 제작 의뢰: 신언엽집사
- ※ 초청장은 제작비 절감을 위해 기성품을 구매해서 사무국직원들과 수작업
하고 있음.
(참고로 초청장에는 “제00회”와 “일시”가 인쇄되어서 남는 것은 폐기되
는 것이 아까우니, 년도 표시 하지 않고 속지만 인쇄해서 작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초청장 발송은 바자회 2주전쯤.
- ※ 티켓, 달란트, 식권 수량은 필요 수량 외에 재정부에 여분의 수량이 필요.

3. 9월 말 이후

- 바자회 전체 준비모임은 수시로: 바자회 준비 일정 안내, 품목 결정, 등.
- 바자회 현수막, 매장배치도 팸플렛 제작 의뢰: 신언엽집사
- ※ 매장배치도는 품목이 조정되고 확정 된 후에 작업 완료가 가능함.
-> 바자회 당일에 300부정도 비치하였으나, 썩 활용도가 많지는 않았음.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음)

* 제32회 평촌교회 사랑나눔 바자회 *

1. 일자

2019년 10월 23일(수) ~ 25일(금)

2. 행사 조직

- | | |
|---------------------|-------------------------|
| 1) 위원장 : 림형석 담임목사 | 2) 부위원장 : 오세웅 장로, 오석진집사 |
| 3) 주관 : 여전도회 및 남선교회 | 4) 후원 : 장로회, 안수집사회 |

3. 조직 및 업무 분장

- 1) 기획조정팀 : 행사전체 기획, 홍보(현수막, 전단지, 티켓 제작), 예산 업무조정(품목결정, 물품가격 등)
 - * 팀장 : 오석진집사 지도 : 김은석목사 부원 : 장로회장, 총남회장, 총여회장, 권사회장, 안수집회장
- 2) 행정 및 진행팀 : 행사의 실행, 판매, 매장 배치 및 운영
 - * 팀장 : 이수호집사 지도 : 김은석목사, 최희수목사 부원 : 각 선교회별 회장
- 3) 지원1팀 : 가스, 텐트, 가판대, 방송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마지막 청소
 - * 팀장 : 유정홍집사 지도 : 사무장 부원 : 최윤호집사, 이희송집사
- 4) 지원2팀 : 주차, 야간방범, 안전관리, 행사 운영지원
 - * 팀장 : 청년위원장 지도 : 서준권목사, 최희수목사 부원 : 차량부장, 주차부장, 청년회
- 5) 지원3팀 : 설거지 및 잔반처리
 - * 팀장 : 안수집회장 부원 : 남선교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 6) 지원4팀 : 행사안내 및 경품행사
 - * 팀장 : 이수호집사 지도 : 김원상목사, 이상하목사 부원 : 총여임원 및 담당자
- 7) 지원5팀 : 행사 안내 및 방송, 내빈안내
 - * 팀장 : 총여전도회 지도 : 조혜련목사 부원 : 강유향권사
- 8) 문화행사팀 : 영화상영 및 인형극, 아가페 문화행사 지원
 - * 팀장 : 배형미권사 지도 : 이성훈목사, 최유진목사
- 9) 어린이돌봄팀 : 행사 기간 중 미취학 아동 돌봄 서비스
 - * 팀장 : 천미화권사 지도 : 교육부교역자 부원 : 교육위원회
- 10) 출납재정팀 : 현금 입금과 티켓에 관한 재정 일체, 필요물품 구입 관리
 - * 팀장 : 양원범집사 부원 : 허성미권사, 식당부임원
- 11) 중보기도팀 : 바자회의 전체 안전사고 방지와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보기도
 - * 팀장 : 오옥자권사 지도 : 최찬호목사, 이승용목사 부원 : 중보기도팀
- 12) 대외활동팀 : 바자회에 따른 대외업무 협조 (노상주차, 이웃주민, 인근상가 등)
 - * 팀장 : 기길운집사 부원 : 당회원

b. 개회예배

평촌교회 바자회는 개회예배를 통해 바자회 시작을 알린다.

개 회 예 배			
			인도: 김은석 목사
목	도		다 갈 이
찬	송 212장		다 갈 이
기	도		오 세 용 장 토 (봉사복지위원장)
성 경 봉 독 히 13:1-3		인 도 자
설	교	손님들을 사랑으로 대접합시다	팀 영 석 목 사
찬	송 218장		다 갈 이
축	사		최 대 호 시 장 (안 양 시)
축	도		팀 영 석 목 사
테이프컷팅		담 당 자
및 축하케익			

-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 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 3 너희도 함께 갚힌 것 같이 갚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서약서

나는 제32회 사랑나눔 바자회를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아래와 같이 참여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바자회 기간동안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모든 거래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구별하며, 사랑과 봉사의 모범을 보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모든 성도들과 화합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지역사회가 칭찬하는 은혜로운 바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10월 20일

서약자: 0 0 0

c. 운영

평촌교회 바자회는 참여하는 성도들이 정해진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질서 정연하게 운영된다.

평촌교회 바자회 행동 수칙

1. 헌납품에 관하여

- 1) 헌납품은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귀중품, 헌옷은 깨끗이 세탁하여)
- 2) 한 가정 당 1점 이상 헌납에 동참합니다.

2. 티켓에 관하여

- 1) 구역별로 배포된 티켓은 1인 1매 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2) 전도 대상자(태신자)에게 드립니다.
- 3) 구역장들께서는 판매에 힘이 들어 자신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4) 각 매장에서 물건 판매 시 티켓의 거스름 돈은 티켓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식에 관하여

- 1) 음식은 맛있게 깨끗하게 量(량)보다 質(질)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 2)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합니다.
- 3) 식권은 음식코너 이외에 물품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음식코너 에서는 식권을 정산하실 때 판매음식 값으로 하게 됩니다.

4. 돈(전대) 관리에 관하여

- 1) 바자회돈 내 돈을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2) 저녁에 마칠 때(폐장)에는 전대를 반드시 재정부에 맡기고 가져야 합니다.(찬양연습실)
- 3) 소매치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4) 원금에 관하여는 반드시 영수증 처리하며 정확하게 기록 하여야 합니다.
- 5) 자기 앞 수표는 이서는 물론 확인하시고 받도록 하십시오.

5. 물건을 팔 때

- 1) 박리다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2) 고객에게는 친절하게 상냥하게 하고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 3) 반품이 올 경우 물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100%교환 또는 환불해 주십시오.
- 4) 장사 안 된다고 매장을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5) 물건이 떨어지거나 부족할 때에도 일찍 문을 닫지 말고 교구총무와 상의 하시고 가급적 마감 시간까지 함께 있도록 합니다.
- 6) 가격은 일관성 있게 팔아야 합니다.(오전 오후가 다르면 안 됩니다.)
- 7) 강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8) 체계적으로 팔아야 합니다.(특히 헌납품은 한꺼번에 팔지 마십시오)
- 9) 가급적 외상 판매는 자제해 주십시오.
- 10) 저녁시간 (폐장 시) 기도로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6. 가정을 돌보는 방법

- 1) 바자회 기간 동안에는 퇴근은 교회로 식사도 교회에서 하도록 합니다.
- 2) 미취학 아동들은 바자회 기간 중 돌보아 드립니다.
※ 아가페 1층 하람 어린이집 (오후 4:00 - 저녁 8:00)

7. 차량에 관하여

- 1) 봉사자 및 교우들께서는 대중교통이나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자가용은 반드시 안내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봉사자는 새중앙교회에 주차 바랍니다)

8. 바자회를 위한 기도제목

- 1) 좋은 날씨 주시기를 위하여
-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사가 되도록
- 3)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이웃과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되도록
- 4) 차량이나 현장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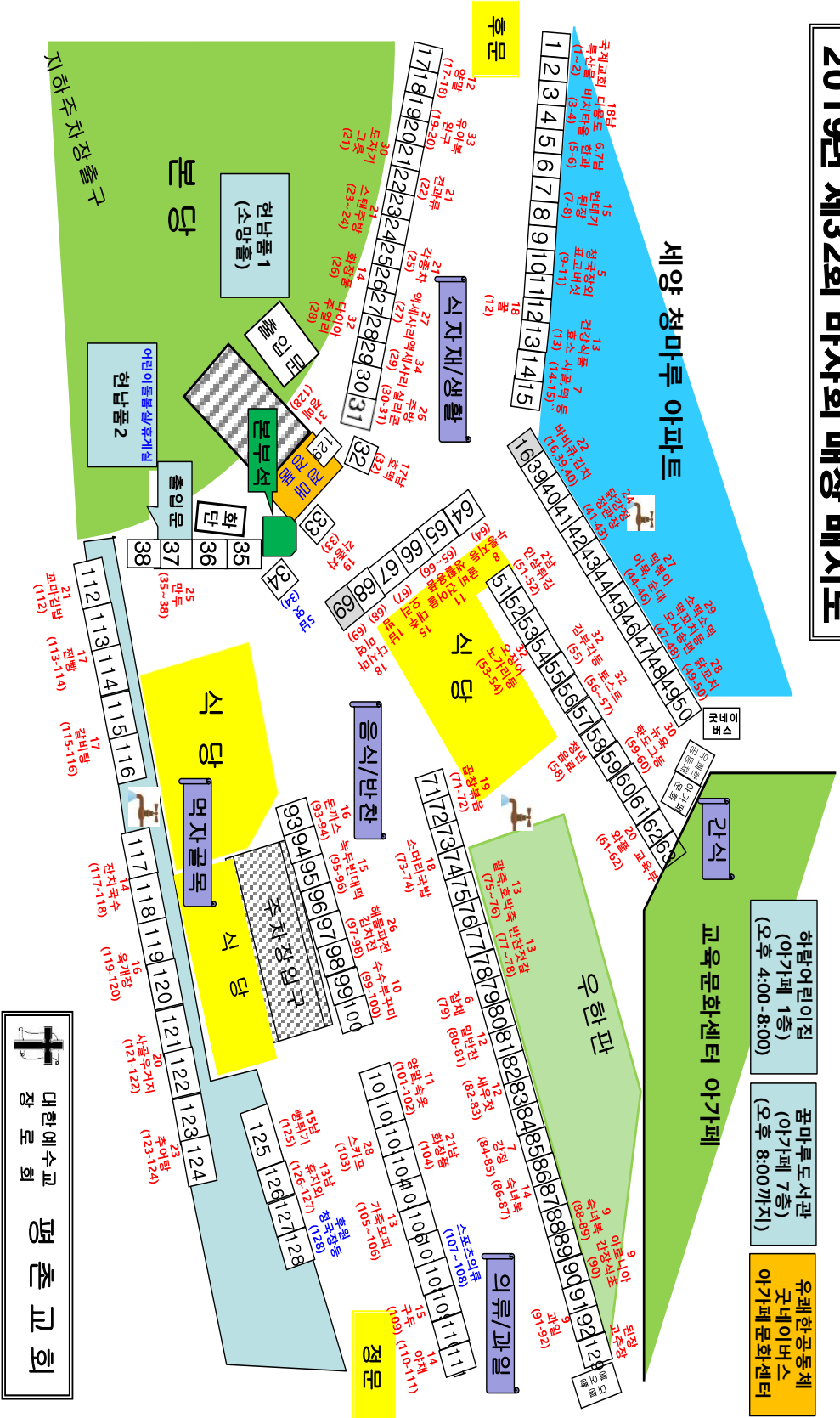
평촌교회 바자회는 선교회별로 판매 품목을 정하고, 해당 선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해진 품목을 준비하고 판매한다.

제 32회 바자회 품목(선교회별)

번호	회장	품 목
5		두부/청국장/콩나물/묵
6		만두 도우미
7		사골/소고기/떡국떡/가래떡/떡볶이떡/참기름/들기름
8		누룽지/강정/식혜
9		아로니아/숙녀복/고구마/과일/
10		우동국수/미용재료/가방
11		굴비/건어물/양말/속옷
12		새우젓/밑반찬/양말
13		가죽모피/젓갈/건강식품/호박죽/팥죽
14		잔치국수/화장품(설휘수)/숙녀복(마담)/야채
15		녹두빈대떡/번데기/된장
16		육계장/돈가스
17		오삼불고기/안홍전빵
18		소머리국밥/다시마/건미역/꿀
19		수수부꾸미/차음료
20		사골우거지/와플
21		충무김밥/각종차종류/스텐주방용품
22		바베큐/알타리김치/파김치
23		추어탕
24		닭강정/모시송편
25		만두
26		해물파전/실리콘주방용품
27		떡볶이/어묵
28		닭꼬치/스카프
29		소떡소떡/피카츄꼬치/떡꼬치
30		뉴욕핫도그/소시지프랑크/음료
31		구제품
32		돼지불고기(비조리)/순대/식탁김/다시마튀각/김부각/다이아엘쥬얼리
33		구제품
34		구제품

2019년 제32회 바자회 매장 배치도

Rev17 : 19.10.06



하말어린이집 (아기페 1층)
(오후 4:00-8:00)

꿈마루도서관 (아기페 7층)
(오후 8:00까지)

유쾌한공동체
굿네이버스
아기페문화센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촌교회



d. 수익금 사용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된다. 평촌교회 바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봉사하는 사랑체험의 장이다. 2019년의 경우 구제금 신청을 받아 관내(안양노회 교회 및 단체)단체 22곳(10,800,000원), 관외(안양노회를 제외한 전국)단체 13곳(12,500,000), 미자립교회 19곳(18,000,000), 선교사 20명(11,800,000), 불우이웃 10명(9,390,000)에게 바자회 수익금을 성금으로 전달하였다.

3. 아가페 시니어학교

평촌교회 아가페 시니어학교는 1997년 평촌교회 부설 경로식당,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서 실시했던 무료식사가 그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이듬해 평촌교회 부설 소망부 노인학교를 신설했고, 소망부 노인학교를 통해서 봉사활동(이발, 효도 관광, 농촌지역 노인 봉사 등)과 취미 생활반(종이접기, 서예, 건강체조, 한글교실 등)을 운영하였다. 평촌교회 봉사복지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아브라함 경로대학’으로 개설하여 코로나 이전(2019년 11월)까지 19회, 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코로나 기간 잠시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코로나 이후 재정비하여 현재는 ‘아가페 시니어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a. 목적

아가페 시니어학교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요구, 교회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공감하며 교회 내 혹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참여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품위향상은 물론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핵가족사회의 노인소외감 해소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모든 활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전파의 목적을 가진다.

b.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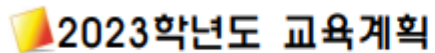
아가페 시니어학교는 평촌교회 봉사복지위원회에 소속으로 종교에 상관없이 만 70세 이상 남, 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 이하 임원(부장, 팀장, 총무, 서기, 회계)과 담임교사, 본교회 성도로서 강사는 무급으로 봉사한다. 학생들의 회비(연회비 3만원)와 교회의 재정으로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 오전에 일정 장소(시온채플, 미스바채플, 가나홀, 체육관 등)에서 운영된다. 교사들은 ‘담임시간’을 통해 출석체크, 간식나눔, 각종 안내 등을 하고, 2주 이상 결석자가 있을 시 반드시 전화심방을 통해 결석 사유를 파악하는 등 회원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한다.

학사일정

구 분		일 정
1학기	개강(입학식)	3월 7일
	종 강	6월 27일
	여 름 방 학	7월 1일 - 8월 31일
2학기	개 강	9월 5일
	종 강	11월 28일

일일시간표

시 간	일 정	진 행	장 소
09:10	임원회의	부장	5층 518호
09:20	교사회의	부장,총무	5층 518호
09:50	찬양	윤양임	미스바
10:00-10:20	예배	목사님,현명희	미스바
10:20-10:40	담임시간	담임	미스바/해당교실
10:40-11:10	체조 I 및 체조 II	장정심/윤양임	체육관/미스바
11:10-12:00	취미교실	담당자	해당 교실
12:00-	점심식사 및 귀가	김춘순	본당 식당
13:00	기획회의	임원 및 담임	5층 518호



*10월 연합체육대회(미정)

월	주(일)	예배기도	프로그램	비고
3	1 (7)	목사님	1학기 개강(입학식)	등록
	2 (14)	권봉논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등록
	3 (21)	현명희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4 (28)	김춘순	예배, 특강, 취미교실	안전교육
4	1 (4)	권봉논	생 일 잔 치	1~4월
	2 (11)	정명화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3 (18)	장정심	예배, 손체조, 특강	건강생활
	4 (25)	윤양임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5	1 (2)	권봉논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2 (9)	목사님	봄 소 중	
	3 (16)	한윤희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4 (23)	정효숙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5 (30)	좌윤정	예배, 특강, 취미교실	스마트폰
6	1 (6)	휴 강	현 충 일	
	2 (13)	김송미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3 (20)	유향례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4 (27)	목사님	생일잔치, 1학기 종강	5~8월
9	1 (5)	권봉논	2학기 개강	등록
	2 (12)	김남정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등록
	3 (19)	김옥숙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4 (26)	목사님	가 을 소 중	
10	1 (3)	휴 강	개 천 절	
	2 (10)	민은아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3 (17)	박영순	예배, 특강, 취미교실	안전교육
	4 (24)	최승현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5 (31)	박인희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11	1 (7)	목사님	생 일 잔 치	9~12월
	2 (14)	윤영옥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3 (21)	강미라	예배, 체조 및 체조 II, 취미교실	
	4 (28)	권봉논	2학기 종강 및 발표회	

차량운행표

1호차

초원부영정문(9:10) - 초원세경정문(9:12) - 아크로벨리정류장(9:15) - 한가람신라육교(9:18) - 셋별한양육교(9:20) - 관악부영건너편정류장(9:22) - 보은공원앞정류장(9:25) - 안양농협맞은편(9:27) - 인덕원성당지나꽃밭앞(9:31) - 인덕원삼성상가앞(9:35) - 인덕원삼호정류장지나30m지점(9:37) - 엘센트로정류장(9:39) - 별말초정문편의점앞(9:43) - 교회

2호차

호성초앞두성상가(9:10) - 경기중앙교회(9:13) - 삼익아파트앞(9:16) - 샘마을쌍용(9:20) - 대원칸타빌2차(9:23) - 반도보라2차버스정류장(9:25) - 반도보라1차버스정류장(9:28) - 의왕시인재글로벌센터(9:35) - 사랑채건너편(9:40) - 두산위브(9:45) - 교회

c. 조직

교 장	김소리 목사	위 원 장	권봉논 장로
지 도	박세용 목사	팀 장	김춘순 권사
부 장	현명희 집사	총 무	정명화 권사
서 기	정효숙 집사	회 계	한윤희 집사

담임교사

1반	좌윤정	2반	김승미	3반	유향례	4반	김남정
5반	김옥숙	6반	민은아	7반	박영순	8반	최승현
9반	박인희	10반	윤영옥	11반	강미라		

❖ 취미반 교사 및 교실

연번	개설반	지도교사	참여교사	장소
1	실버댄스반	김연화		2층 뽀 열
2	노 래 반	김선경		3층 두란노
3	장 구 반	장정심	좌윤정	4층 미스바
4	만 들 기 반	고정미		4층 406호
5	오카리나반	박은자	유향례	4층 408호
6	그 리 기 반	이숙희		4층 411호
7	찬 양 반	김정분	김옥숙	5층 514호
8	영화감상반	김남정	최승현	7층 706호

4.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²⁷

평촌교회는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2008년 3월 17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36-1, 136-4, 136-13, 136-15, 136-16번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대지면적 656평). 2008년 5월 18일 교육문화센터 건축현금(45억) 작성 예배를 드렸으며, 2008년 11월 13일 지하 2층 지상 7층 연건평 4,048평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009년 4월 25일에 교육문화센터 기공예배를 드리고 첫 삽을 뜨게 되었다. 시공은 ‘(주)파라다이스글로벌’이 하였으며, 설계 및 감리는 ‘미소로 건축사’가 하였다. 공사는 2년 가까이 진행되었고 2011년 1월 16일에 준공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육문화센터 아가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층에는 쉼과 소통의 공간인 카페, 2층은 소그룹실과 다목적 회의실로, 3층은 각종 문화 활동이 가능한 교실로 구성하였다. 또한 4, 5층은 탁구, 농구, 배드민턴, 스포츠

²⁷ 평촌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평촌교회 50년사 화보집』 (서울:매거진 아가페, 2015), 44-46.

댄스 등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 6층은 예배와 공연, 결혼식을 위한 강당 및 연회실, 7층은 어린이 도서관과 청소년 독서실로 구성하였다.



a. 비전

평촌교회 립형석 은퇴 목사는 평촌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역사회를 품고 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를 세우자’ 라고 비전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문화센터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교회 인근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다기능 복합 사역센터를 건축하였다. 열린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편하게 찾아오게 하고, 교회는 그들을 섬김으로 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현재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는 ‘배움으로’, ‘앎으로’, ‘삶으로’를 핵심가치로, ‘작은 걸음으로 작은 배움으로!’ , ‘당신은 가슴 두근거리는 삶의 주인공!’ 을 캐치프레즈로 삼아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다양한 여가활동 배움의 기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꿈과 열정을 찾아가는데 함께 하고자 한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언제나 공부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 가슴 두근거림을 나눌 수 있는 아가페 문화센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²⁸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

배움으로, 앎으로, 삶으로

작은 걸음으로, 작은 배움으로!
“당신은 가슴 두근거리는 삶의 주인공입니다!”

Through learning knowing living

평촌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다양한 여가활동, 배움의 기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꿈과 열정을 찾아가는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b. 문화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섬김

²⁸ <https://www.agapctr.org/sub06/sub01.php>. [2024. 3. 15 최종 접속]

1) 문화강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배움으로’, ‘앎으로’, ‘삶으로’를 핵심가치로, ‘작은 걸음으로 작은 배움으로!’, ‘당신은 가슴 두근거리게 삶의 주인공!’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다양한 여가활동 배움의 기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꿈과 열정을 찾아가는데 함께 하고자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성인강좌(‘나의 삶을 디자인 한다.’)는 취미반부터 시작하여 자격증반까지 강좌들이 다양하다. 미술(유화, 뎀생, 수채, 보태니컬아트 등), 수작(비즈공예, 규방공예, 포크아트, 프랑스 자수 등), 댄스(라인댄스, 차밍다이어트댄스, 벨레댄스, 건강댄스 등), 음악(성악, 피아노, 팬플룻, 우쿨렐레, 하모니카, 오카리나, 하프, 기타 등), 전통(장구, 한국무용 등), 어학(영어, 일본어 등), 자격증반(커피바리스타 등) 등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아, 초등, 청소년 강좌(‘우리 아이의 성장을 함께 하다.’)는 미술(미술로 표현하기, 아트뮤지엄 창의미술, 아트 스튜디오 등), 댄스(방송댄스, K-POP 방송댄스 등), 창의교실(바둑, 체스, 양의 융합 영어 독서 등), 역사(위인 탐험대, 역사 탐험대 등), 요리(플라워-동물 케이크, 키즈쿠킹 등), 발레(어린이 표현발레, 어린이 성장발레 등), 실내스포츠(탁구, 배드민턴, 농구 등) 등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아가페 문화센터

봄학기 회원모집

- 강좌기간 : 2024년 3월 4일 (월) ~ 2024년 5월 25일 (토)
- 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 (월) 09시 ~ 강좌별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1. 인터넷회원가입(<http://www.agapectr.org>)→2. 강좌검색→3. 강좌신청→4. 결제
- 결제방법 : <계좌이체> 농협 302-4250-0204-21/ 예금주-김소리 (아가페 평생교육원) ★반드시 수강자명으로 입금
<카드-센터방문> 아가페문화센터 3층 행정실
월~금 09:00~18:00, 토 09:00~12:00 / 센터휴관(일요일, 법정공휴일)

가장 문의

아가페 문화센터
(031)425-0204

 인양사랑페이사용처

홈페이지

<http://www.agapectr.org>

아가페 문화센터 ▼ 검색

중도 수강 수시 접수 가능






2) 카페 하임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 1층에 위치한 ‘카페 하임’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성도,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카페 하임’은 만남의 공간, 소통의 공간, 쉼의 공간, 다양한 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카페 공간이 크기에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도 이용하기에 용이하여 인근 지역 부녀회, 인근 학교 학부모 모임 등도 ‘카페 하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음료 뿐만 아니라 베이커리, 피자, 분식까지 다양한 메뉴를 판매했으나, 코로나 19 이후로 음료 및 간단한 베이커리 정도의 메뉴로 축소하여 판매, 운영되고 있다.



3) 어린이(꿈마루) 도서관

2011년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가 개관하면서 어린이 도서관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문화센터 7층에 위치한 어린이 도서관은 100평(346㎡)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기독교 도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서와 영상자료 등을 갖추고 있어 교인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여 독서를 하거나 필요한 도서를 대출하는 등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독서활동과 도서대출, 독서문화 프로그램, 특강 등 다양하고 활발하게 도서관이 운영이 되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현재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4) 청소년 독서실

지역 청소년들의 자율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에서는 어린이 도서관과 함께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안전 등을 위해 남학생용 공간과 여학생용 공간을 구분하고 독서실 총무가 항상 위치하여 관리하고 운영하였다. 하지만, 어린이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현재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모색하고 있다.



5) 대관 사업

교육문화센터 아가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층에는 쉼과 소통의 공간인 카페, 2층은 소그룹실과 다목적 회의실로, 3층은 각종 문화 활동이 가능한 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4, 5층은 탁구, 농구, 배드민턴, 스포츠 댄스 등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강당, 6층은 예배와 공연, 결혼식을

위한 강당 및 연회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하기에 지역의 다양한 기관, 단체 등에서 대관을 신청할 시 필요와 목적에 적합한 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기관, 단체 등에서 문화센터의 다양한 공간을 대관하여 이용하고 있다. 단, 주일은 교회학교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대관을 진행하고 있다.



C. 지역 기관과의 연계사업

1.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계사업

a.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은 ‘함께 하는 우리, 행복한 지역사회’ 를 비전으로 1999년 개관하였다.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의 핵심 가치 세 가지는 바로, ‘사람다움’, ‘사회다움’, ‘사회복지다움’ 이다.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전략은 ‘함께 도전’, ‘함께 변화’, ‘함께 성장’ 이다.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람중심’, ‘지역중심’, 신뢰중심’ 이 세 가지를 전략과제로 삼는다.







b. 평촌교회와 부흥종합사회복지관

평촌교회 사역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역이었다. 앞서 소개한 바 있는 봉사대행진, 사랑나눔 바자회, 아가페 시니어학교,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 사역은 평촌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대표적인 사역이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19, 교회를 향한 시대적 요구는 그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평촌교회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되었다. 이에 평촌교회는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섬김과 역할을 더욱 확대하게 되었다.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을 통해 해성교회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후원하고 위탁 운영을 했었다. 하지만, 해성교회가 더 이상의 후원 및 위탁 운영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자, 평촌교회 당회는 해성교회를 대신하여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조경래 목사를 관장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이하 부흥복지관 이라 한다)과 “평촌교회”는 협약 당사자 간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평촌교회”와 “부흥복지관” 공동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1. “평촌교회”와 “부흥복지관”은 협력 과정에

서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며 두 기관의 규정 및 관계 법령 내에서 협력한다.

2. 평촌교회"와 "부흥복지관"은 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감 정보와 관련한 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협약범위) 상호 협력해야 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평촌교회”는 “부흥복지관”에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 공간(3층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상호 협의하여 관리비(전력비, 냉·난방비)를 청구할 수 있다. 2. “부흥복지관”은 평촌교육문화센터가 이웃과 함께하고, 희망과 기쁨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1) 지역 내 보호 및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당시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2)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문화복지사업 등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전문서비스 3)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하는 지역조직화사업 3. “평촌교회”와 “부흥복지관”은 상호 정보, 자원, 서비스 공유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협약의 세부 규정) 본 업무협약의 세부 실행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업무협약 체결 후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6조(발효, 유효기간, 종료) 본 업무협약의 발효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협약은 서명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년 말)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2. 사정상 업무 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다고 일방이 요구할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본 협약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대표자들이 다음과 같이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5월 9일


 양양시는 유쾌·성미한 지역사회
 안양시부흥종합사회복지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촌교회

관장 조경래 (인)



담임목사 림형석 (인)



c.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계사역

평촌교회에서는 부흥종합사회복지관에 연 5,0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하 부흥어린이집 법인지원금 연 2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연계사역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였다.

1) 위기가정을 위한 나눔바자회

코로나 19로 지역 주민 모두가 힘겨워 하던 2020년부터 평촌교회는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위기가정을 위한 나눔 바자회를 진행하였다. 이미 평촌교회 하면 바자회 잘하는 교회로 정평이 나 있었기에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계사역으로 진행된 바자회는 지역 주민들이 관심과 기대 가운데 아무 사고없이 잘 진행되었다. 코로나 19 방역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바자회는 이마트를 비롯하여 여러 기업에서 후원한 다양한

물품들(의류, 가전, 가구, 문구류, 장난감, 기타 생활용품 등)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2) 김장 김치와 함께 곁들일 ‘고기드림’

평촌교회 여전도회에서 담근 김장 김치와 후원금으로 구입한 고기(구이용 소고기, 수육용 돼지고기 등)를 포장한 상자를 지역 사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150가정(사회적 고립가구, 독거노인가구, 위기가구 등)에 전달함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응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3) 나눔이 번지다 캠페인

안양 지역 내 나눔을 실천하는 중추 지원 조직과의 협력,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와 주민에게 생필품 나눔 참여 홍보 및 독려, 권역별로 자원이 필요한 주민 발굴, 행사 당일 모금한 생필품과 응원 엽서를 포장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을 통해 안양시민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평촌교회와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하였다.

4) 조금 특별한 가족여행

지역 내 사연이 있는 가족 및 이웃 간 여행을 통해 서로의 우애와 관계를 두텁게 다져 가족 및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평촌교회 봉사자 가족과 이용자 가족이 함께 또 다른 가족이 되어 화담숲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봉사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주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5) 어르신들 디지털 교육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상점들이 늘어나지만, 어르신들에게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주문하고 결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촌교회교육문화센터 아가페 1층에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을 수집하여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사용 교육도 실시하였다.

6) 환경합창대회

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대기업인 ‘GS과워’의 후원으로 “Green-song 환경합창대회”를 주최하였다. 환경합창대회는 이웃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민으로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합창대회이다.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는 평촌교회에서는 ‘하늘소리 합창단(어린이 찬양단)’과 ‘하일 중창단(여성 중창단)’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2. 기아대책과의 연계사역

a. 기아대책²⁹

기아대책은 1989년 설립된 해외를 돕는 한국에서의 최초의 기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형태의 빈곤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아대책은 빈곤 종식을 위해 떡과 복음을 전하는 미션 NGO이다. 기아대책은 아동과 공동체 자립을 위한 출구전략을 가지고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공동체의 자립 역량을 키워 빈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기아대책은 헌신된 전문인 선교사 기대봉사단과 함께 일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사 기대봉사단은 전 세계에 400여명이 파송되어 있다. 기아대책은 행정비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최대 혜택을 주기 위해 모금한 후원금을 현장에 직접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아대책은 함께 가치를 실현시키는 소중한 존재인 후원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간다.

b. 희망상자

‘희망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가 1상자 당 5만원을 후원하면

²⁹ <https://www.kfhi.or.kr/about/introduce/brand>. [2024. 3. 15 최종 접속]

‘기아대책’ 이 여러 기업체에서 후원 받은 10~15만원 상당의 식료품, 생필품, 방한용품 등을 담은 ‘희망상자’ 를 제작하여 후원자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인근 지역 내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평촌교회는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희망상자’ 를 안양시와 의왕시 지역 위기 가정 및 취약계층, 노숙인들에게 전달하고자 ‘기아대책’ 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위한 희망상자” 사업을 진행하였다.

c. 후원계획

평촌교회는 위원회 중심의 사역을 하는 교회이다. 여러 위원회 중 지역사회를 향한 복지, 봉사의 사역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봉사복지위원회이다. 봉사복지위원회에서는 희망상자 사업을 위해 2023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기아대책’ 과 후원계획을 수립하였다.

2023 평촌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 하는 「따뜻한 겨울을 위한 희망상자」 후원계획

희망상자란? 1상자 5만원을 후원하면 기아대책이 후원받은 물품을 더하여 10-15만원 상당의 식료품, 생필품, 방한용품 등을 담은 희망상자를 제작, 평촌교회 이름으로 인근 지역 내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1. **목적:**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희망상자를 안양 또는 의왕 지역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노숙인들에게 전한다.

2. **기간:** 2023년 12월 3일(주) ~ 12월 10일(주)

3. 지원대상

- ① 안양 및 의왕 지역 어려운 이웃(안양부흥복지관을 통해 대상자 선정, 최소 200가구 이상)
※대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가정형편이 많이 어렵거나 힘든 경우 추천을 받아 포함한다.
- ② 평촌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노숙인들(100명 예상)
- ③ 예사랑부 장애인 가정

4. 방법 및 전달과정

- ① 자을 헌금을 '특별헌금 봉투'에 담아 드리고, 봉투안에 있는 '카드'(희망상자 열매)에 성함과 교구를 쓴 후 '희망트리'에 직접 건다.(12/3-12/10)
- ② 평촌교회 성도들과 함께 희망상자 제작을 하고, 기아대책과 전달식을 가진다.(12/20)
- ③ 노숙인 연말예배 시희망상자를 직접 전달하고(12/21), 인근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배송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한다.
※ 현금액이 부족할 시, 복지위원회 예산을 사용하여 희망상자 개수를 추가 신청할 수 있다.

5. 홍보방법

- ① 주일예배 시 영상광고 및 안내(12/3-12/10)
- ② 희망나무 및 배너, 포스터 등 준비(12/1 - 12/2)
- ③ 각 교구별 단톡방을 이용하여 홍보영상 및 안내글 공유(12/3-12/10)
- ④ 희망상자 사역 스케치 영상을 제작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유(12/24 및 12/31)
- ⑤ 기독교 매체나 지역매체를 통하여 따뜻하고 의미있는 사역을 전한다.(12/24 - 12/31)

6. 기타

- ① 소요예산은 복지위원회에서 담당 및 활용한다.

■ 희망상자 일정(11월 말 ~ 12월)

26	27	28	29	30	12월	1	2
	희망상자 홍보물 제작	희망상자 홍보물 제작			희망트리& 열매봉투작업 (본당 로비)	주보간지작업 홍보물 부착 (현수막&포스터)	
3	4	5	6	7	8	9	
희망상자 광고 및 작성			희망상자 제작장소 섭외 &하람어란이집 협력 구하기	희망상자 노숙인 설문 (방한용품 사이즈 체크)			
10	11	12	13	14	15	16	
희망상자 특별헌금	희망상자 신청마감			희망상자 노숙인 설문 및 내의 주문 (부흥복지관 협력)			
17	18	19	20	21	22	23	
		희망상자 물품이동 및 세팅 (3층 두란노채플)	희망상자 제작 및 전달 인터뷰(기독교보)	희망상자 배부 (노숙인에배시)		청년부 연탄 및 희망상자 전달	
24	25	26	27	28	29	30	
		기독교보 기사 확인 및 공유 (SNS, 홈페이지 등)	희망트리 철거	희망상자 스케치 영상 컴핑	희망상자 스케치 영상 제작완료		
31							
희망상자 스케치 영상송출 및 유튜브 업로드 (대에배시)							

① 11/27(월)~28(화): 희망상자 홍보물 제작

(열매 - 디자인 맥, 현수막&배너&포스터 - 두날개 디자인)

② 12/1(금): 희망트리(성탄 장식부 협력), 열매&봉투작업(복지위원회 및 위원회원 지인), 스케치 영상 시작(담당: 최현식 청년)

③ 12/2(토): 후보간지 작업(열매봉투 넣기, 8교구 새벽예배 후)

④ 12/3(주일): 희망상자 광고 및 작성

⑤ 12/7(목), 12/14(목): 노숙인 설문조사(복지관 직원-희망상자에 넣을 방한용품(내의) 사이즈 체크 및 주문)

⑥ 12/19(화): 희망상자 물품이동 및 세팅(3층 두란노채플, 교역자&간사 협력)

⑦ 12/20(수): 희망상자 제작 및 전달식(1-8교구, 청년부, 부흥복지관 협력), 기독교보 기사 인터뷰, 담임목사님 스케치 영상 촬영

⑧ 12/21(목): 노숙인 연말예배시, 희망상자 배부(복지관 직원 협력)

⑨ 12/23(토): 청년부 연탄 및 희망상자 전달

⑩ 12/26(화): 기독교보 기사 확인 및 공유(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톡 등)

⑪ 12/27(수): 희망트리 철거

⑫ 12/28(목)~29(금): 희망상자 스케치 영상 컴핑&제작완료

⑬ 12/31(주일): 희망상자 스케치 영상송출(대에배시) 및 유튜브 업로드

희망상자 물품이동 및 세팅

- 일시: 2023.12.19.(화) 오전 9시 - 12시(시작시간은 약간 뒤로 밀릴 수 있음)
- 장소: 아가페 문화센터 1층 → 3층 두란노채플
- 참여요청인원: 기아대책 직원, 평촌교회 직원 및 교역자
- 비고: 1)교역자회의 오전 8시 시작. 마치는대로 물품이동 참여 / 인부 4명 고용
2) 편안한 복장으로 교역자회의 참여(예정된 사역 있는 분은 사역진행)

시간	일정
08:30 - 09:00	<p style="text-align: center;">희망상자 물품 배송 준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탑차 주차공간 확보(아가페 1층 출구쪽) 2. 본당 건물에서 간이 테이블(20개) 가지고 이동 3. 미리 테이블 및 의자 세팅. 6라인 형성하기
09:00 - 1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 하차 - 섭외 인부 4명 2. 이동 및 세팅 - 목회자 및 직원, 기아대책 직원 3. 간식 테이블 세팅 - 윤양임 권사, 현명희 집사

희망상자 제작 및 전달방식

- 일시: 2023.12.20(수) 오후 12시 30분
- 장소: 소년부실, 어와나실(아가페 3층)
- 예상소요시간: 약 3시간(인원이 많을수록 소요시간 단축)
- 참여요청 부서: 1-8교구, 청년부, 부흥복지관

■ 제작방식

- ① 희망상자에 들어갈 물품을 미리 세팅한다.
- ② 상자가 물품라인 주변을 돌 때, 물품을 하나씩 담는다.
- ③ 물품을 다 넣은 희망상자를 패키징하여 예정된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 ④ 간식 세팅(따뜻한 물, 종이컵, 커피, 차, 과자 등) - 담당: 복지위원회 임원



■ 전달방식

- ① 당일 완성된 희망상자는 1-3시 사이 1층 로비로 이동시켜, 쌓아둔다.
 - 1) 노숙인 예배 후 전달할 희망상자(100개) - 본당 1층(권사실)으로 이동
 - 2) 청년부 희망상자 - 청년부실로 이동
 - 3) 당일 직접 전달할 희망상자 - 스타렉스 및 개인차량으로 이동
- ② 오후 3시부터 복지관 또는 행정센터 담당자들이 와서 사전 수량에 맞춰 가져간다.
(부흥복지관 직원들이 관리함)
- ③ 미리 섭외된 2가정 인터뷰 촬영(담당: 최현식 청년)

■ 일정 및 시간

시간	일정
09:30 - 10:30	희망상자 제작을 위한 사전준비 (컴퓨터, BGM, 물, 간식, 온풍기 등)
10:30 - 11:50	수요예배
11:50 - 12:30	점심식사 및 교제(3층 소년부실) ※임원들은 일찍 식사 후, 간식 섬김
12:30 - 12:40	1. 안내(이태훈 목사) 2. 담임목사님 격려 및 기도 3. 희망상자 제작 방법 PT(조찬욱 목사)
12:40 - 15:00	1. 희망상자 제작 및 장소 정리 2. 기독교보 한국장로교신문 인터뷰(담임목사님) ※ 12:40~13:00 (카페하임) 3. 스케치 영상 인터뷰 촬영(담임목사님) 4. 전달식 촬영 / 소년부 정리
15:00 - 15:30	1. 복지관, 행정센터 등 분출(아가페 1층 - 담임목사님께서 전달) 2. 섭외된 2가정 상자 전달 및 영상촬영
15:30 - 16:00	마무리

희망상자는 지역 노숙인들에게도 전달되었다.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희망상자를 전달하였다.

노숙인 예배 및 희망상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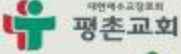

■ 일시: 2023.12.21(목) 오전 8시 30분 - 9시 20분

■ 장소: 사랑홀(본당 1층)

시간	일정
08:00 - 08:30	노숙인 예배 및 희망상자 전달을 위한 사전준비 (컴퓨터, 선물 사전세팅, 사진 및 영상촬영 등)
08:30 - 09:00	「노숙인 예배」 1. 사도신경 2. 찬송(1절) 3. 말씀(최희수 목사님) 4. 특순(하일 찬양팀) 5. 축도(최희수 목사님) 6. 광고(이태훈 목사님)
09:00 - 09:20	희망상자 및 성탄선물 전달
09:20 - 09:30	마무리

[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

■ 배너(가로:70 세로:165),
포스터(A2 사이즈)

 평촌교회
  희망연구
기아대책

**2023 평촌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희망상자**
 12.03(주) ~ 12.10(주)

모두가 힘겨운 이 때,
보다 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에게
성탄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희망상자를 나눕시다.

1상자 5만원 후원하시면

식료품, 생필품, 방한용품 등 기아대책이
 후원받은 물품을 더하여 10~15만원 상당의
 지원물품이 평촌교회 이름으로 인근 지역 내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에 전달됩니다.

지원대상

- ① 안양 또는 의왕 지역 어려운 이웃
 ※ 안양 부흥복지관을 통해 수혜대상자 선정 및 전달
- ② 평촌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노숙인들

방법 및 전달과정

- ① 자율 헌금을 '특별헌금 봉투'에 담아 드리고,
 '희망상자 열매 카드'에 성함과 구역을 쓴 후
 '희망트리'에 직접 건다.(12/3~12/10)
- ② 평촌교회 성도들이 함께 희망상자를 제작한다.(12/20)
- ③ 노숙인 연말예배 시 희망상자를 직접 전달하고,
 인근 지역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한다.(12/21)

■ 희망상자 열매(가로:8 세로:7, 양면)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성함 _____
구역 _____



평촌교회와 기아대책이 함께하는 **따뜻한 희망상자 사랑나눔**

기간 12.03(주) ~ 12.10(주)

장소 평촌교회



■ 현수막(가로590 세로70, 각목 + 끈, 각목 튀어나오는 부분 절단 요청)

■ 2023 희망상자 현금액

희망상자 현금액(2023.12.10,현재)	31,441,000원
청년부 현금 예정액(~12.17)	2,000,000원
주중 목적현금 예상액(~12.17)	1,559,000원
합계(희망상자 현금 총액)	35,000,000원

■ 2023 희망상자 전체 가용예산

희망상자 현금 총액	35,000,000원
복지위원회 본재정 가용예산	20,000,000원
합계	55,000,000원

■ 2023 희망상자 예산

희망상자전체 가용예산	55,000,000원
희망상자 1000개(최대)	- 50,000,000원
노숙인 방한용품(내의) (1개당 2만원X 100개)	- 2,000,000원
준비비 (전체 간식, 포장비 등)	- 1,000,000원
합계	2,000,000원





IV. 평가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하여 평촌교회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갔는지를 살펴보았다. 평촌교회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였고, 코로나19 이후, 지금도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이다. 평촌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기를 힘써왔기에 평촌, 의왕, 군포 등 이 지역사회 속의 평촌교회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오늘날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회와 지역사회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지역 비영리 기관, 정부 기관, 사회적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가 보유한 인력, 공간, 자금 등의 자원을 다른 기관과 공유하고, 그 반대로 다른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평촌교회는 교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봉사대행진, 사랑나눔 바자회, 문화센터 사역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부흥종합사회복지관, 기아대책 등과 연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평촌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다가올 정도로 힘들고 고단한 사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사역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일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없다. 평촌교회가 봉사대행진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겼을 때, 당시 담임목사였던 립형석 목사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겼다.

“특별히 금년에 창립 50주년이기 때문에 봉사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봉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소망과 위로로 주님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터뷰 속에서도 사역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저희 교구가 아동임시보호소를 지정 받아서 거기서 하게 됐어요.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보듬어 주면 표정이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조금 밝아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흡족함도 있고 예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됩니다.(양승혜 집사)”

“저희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몸짓이 아닌가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받으시는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희들도 참 기쁩니다.(평문숙 권사)”

지역사회의 비개신교인들은 교인들의 언행, 교회의 활동 등을 통해 한국교회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한다. 비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개신교인들은 교회가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교회를 바라고 있다. 한국교회를 향한 여러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 있겠지만,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볼 때, 평촌교회를 한국교회가 당면한 상황과 교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하나의 모델로 삼아 많은 한국교회들이 평촌교회처럼 지역사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V. 결론

A. 요약

본 논문을 통하여 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촌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Ⅱ. 교회에 당면한 상황’에서 교회의 기원과 본질, 교회의 역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역할, 평촌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통합교단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목회적 대안으로서의 마을목회에 대해 정리하였다.

‘Ⅲ.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촌교회’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평촌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평촌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소개하고 정리하였다. 평촌교회가 봉사대행진과 사랑나눔 바자회, 아가페 시니어학교와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 사역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평촌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기관인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 기아대책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Ⅳ. 평가’에서는 현재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모델이 되는 평촌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평가하고, 앞으로 교회가 어떤 사역과 모습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B. 제언

평촌교회는 봉사대행진, 사랑나눔 바자회, 아가페 시니어학교, 평촌교육문화센터 아가페 사역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평촌교회처럼 사역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미자립교회 또는 소형교회이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기는 고사하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에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 지역주민들을 돌아보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처음부터 평촌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상황과 여건들을 갖추었던 것은 아니었다. 평촌교회가 세워졌던 1965년은 제1기 평촌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이다. 교회 주변은 논밭 밖에 없던 그런 곳에서 평촌교회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과 발전이 가져온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평촌교회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돌아보고 지역사회를 섬겨왔다. 크고 거창한 사업을 계획한다면 교회가 다 감당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역하기 힘들다. 평촌교회 아가페 시니어학교의 경우,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자 하는 경로식당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하기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교회 주변을 돌아보아 교회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섬김, 사역을 먼저 찾기를 제안한다.

평촌교회는 교회 자체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역을 감당함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기관들과 연계하여 사역을 감당했다.

교회와 함께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기관을 찾고 그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제안한다. 교회 주변의 주민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확인하여 교회가 한 두 가정이라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역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촌교회의 경우, 부흥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연계 사역을 통해 지역의 요청과 필요에 맞춰서 더욱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가 있었다. 복지기관의 프로젝트와 교회의 봉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을 것이다.

평촌교회가 기아대책이라는 NGO 단체와 연계하여 희망상자 사업을 진행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NGO 단체와 교회가 연계할 수 있다면 교회 규모와 재정에 상관없이 지역의 필요에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섬김으로 다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 가고, 지역사회도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사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다.

부록

< 부록 I 봉사대행진 담임목사 설교 >

희년을 선포하라

레25-8-12, 눅4:16-20

2015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52주, 365일을 새로 받았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가 우리 교회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해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뜻깊은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 달력에 의하면, 7일이라는 숫자가 기본이 됩니다. 매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서, 예배와 교제의 날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입니다. 그해에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년째 되는 해에 기적적으로 많은 풍작을 거두게 하셔서, 7년째와 8년째 추수하기까지 먹을 것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에,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게 하시고, 그 전날에 이를 치를 가져가게 하신 것과 같은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되는 안식년이 지나면, 50년째가 되는 해가 되는 데, 그 한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5장 9-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회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회년에 대해 말씀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9절 - 회년은 속죄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속죄일이 되기 전에 백성들은 10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와 슬픔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숫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회년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뿔 나팔을 크게 불어서 회년이 시작되었음을 공포했습니다.

10절 - 회년은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1절 - 이 해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해입니다. 회년에는 땅도 백성들과 함께 한 해를 쉬게 됩니다.

12절 - 이 해에는 백성들이 밭에서 난 소출을 먹습니다.

14-17절 회년은 모든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해입니다. 땅을 돌려줄 때, 회년의 연수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공정하게 값을 받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년은 원상 복귀의 해입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해입니다. 회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풀려나서 자유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부채가 탕감되었습니다.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땅의 지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만 엄청난 재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영구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막는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 빚이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1000조

원이면, 5000만 국민당 2000만원씩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지금 평균 2000만원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희년의 나팔이 불고 나면, 그 모든 빚이 일시에 다 탕감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사려고 진 빚, 자동차 사려고 진 빚, 가게 운영하느라 빌린 모든 빚이 다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 공부시키려고 땅을 팔았던 농부는 다시 자기 땅을 갖게 되고, 자식 결혼시키려고 집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집을 갖게 되고, 불경기 때문에 파산했던 사람들은 예전의 회사를 다시 갖게 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희년은 그런 해입니다.

희년의 개념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레위기의 명령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기간을 다 합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2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민족에게로 흩으실 것이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벨론 70년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제도는 강력한 제도이고, 그것은 앞으로 올 일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레위기서에서 이사야서의 시대로 약 760년 정도를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40-55장은 위로의 메시지이고, 56-66장은 소망의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이방민족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오실 메시야의 인격과 사역에 의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후반부인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자는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61장 1-3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구원자는 소망과 치유와 자유를 가져다줄 분이었습니다. 그 메시야가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원리가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700년이 흐릅니다.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 날은 주후 30년경의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날, 그 회당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장로 중의 하나가 선지자의 글을 읽을 사람을 찾다가, 그의 눈이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예수에게 머물렀습니다. 예수는 그때 그 지역을 여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가 예수님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 섰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읽어주는 성경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치고, 예수님의 눈이 머문 곳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의 광경을 눅4:16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19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 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공동의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는 시작하는 기도가 있고, 율법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랍비나 율법을 잘 아는 방문 인사에 의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이고, 가족들이 있는 곳이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 일을 하는 목수 예수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많은 내용 중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신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서서 읽고,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젊은 목수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음 절에 무어라고 말씀합니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때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여기의 회년의 약속과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을 성취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야가 바로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의 설교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자기가 메시야이고, 희년이 이르렀고, 그의 사명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아직도 그들 귀에 쟁쟁한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희년을 성취할 메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수근거렸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혼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잘 알았습니다. 자라날 때부터 잘 알았고, 가족들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의 소문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자신도 목수인 예수가 메시야라니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때 회당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가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날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산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그날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희년의 예언과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메시야의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메시야의 사역을 보면,

1.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셨고, 그 자신도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의 가난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2. 메시아의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비탄에 빠진 자, 배신으로 마음이 상심된 자, 학대를 받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3. 예수님의 사역은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출애굽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애굽이나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들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술과 성, 도박, 두려움, 실패, 분노, 원한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4. 예수님의 사역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전에 사도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박해할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3일간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 졌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영적인 비늘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습니까?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비늘이 벗겨지고, 그들이 영적인 자유인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5. 예수님의 사역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년의 제도를 다시 세우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회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회년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심령의 가난에서, 상한 마음과 영적인 어둠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회년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965년에 우리 교회가 이곳 평촌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회년의 해를 시작하면서, 회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회년을 선포하고, 금년 한 해를 회년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회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회년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시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신의 일은 하지 않고, 신령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육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한 것처럼, 회년의 해는 영적 부흥의 해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영적 생활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주일 낮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가면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필수예배와 선택예배가 있다면, 주일에 드리는 두 예배는 필수예배입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선택예배입니다. 여러분 형편에 따라 선택해서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 힘쓰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올해도 나누어 드린 성경통독표를 사용해서, 매일 성경을 읽으셔서, 한 번 이상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둘째로, 회년에 일어나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고,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가난한 분들, 소외된 분들을 섬기는 일을 힘쓰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려고 합니다.

- ① 교구 내 어려운 분들을 돕는 교구 돌봄 사역입니다.
- ② 안양과 의왕, 군포의 여러 복지시설과 기관을 방문하는 사역입니다.
- ③ 지역사회를 섬기는 돌봄 사역입니다.
- ③ 우리 교회 내의 돌봄 사역을 돕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매월 마지막 달에 만원 봉사헌금을 드리고, 그것으로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봉사 사역을 하려고 하면 힘이 약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 봉사 사역을 할 때, 놀라운 힘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회년에 일어나는 일은 잃어진 영혼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와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려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5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잃어진 영혼을 한 명씩 전도하기 위해 힘써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5일 부활주일, ‘영혼사랑 초청잔치’를 타겟으로 삼고,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한 분

씩 모시고 나오도록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년은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49년째 되는 안식년에도 농사를 하지 않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도 농사를 하지 않으면 2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2년은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씨를 뿌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열두 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도와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겂옷을 만졌습니다. 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겂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 여자는 속으로 계속 말하기를, 겂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스스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시간이 없지만, 봉사하는 일을 힘써 보자. 내가 여유가 없지만 만원 헌금을 드려서 어려운 이들을 돕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회년선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동영상 시청

회년이 되면 빨 나팔을 불어서 회년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면서, 빨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 나팔 소리와 함께, 특별한 종을 울려서 회년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종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랫동안 종으로 사용되었던 종입니다. 오늘 50주년을 맞이하는 날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종을 울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회년 선포의 글을 읽은 후에 원로장로님께서 타종해 주시겠습니다.

2. 회년의 선포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회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50년은 우리 교회가 한국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다음의 세 가지 사역을 위해 힘쓸 것을 선포합니다.

1) 영적활동을 통해 회년을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개인적인 경건생활과 예배생활에 힘쓰겠습니다.

2) 봉사생활을 통해 회년을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안과 밖의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3) 전도생활을 통해 회년을 선포하겠습니다. 50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잃어

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3. 뿔 나팔 소리와 타종

4. 합심기도

50년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50년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영적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년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엔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전15:51-52).”

그날은 완전한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져서, 독수리가 날아가는 하늘 위로, 제트기가 날아가는 하늘 위로 올라가고, 목성과 화성을 지나서, 천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거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입에서는 천군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희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선포할 때, 천국의 즐거움을 미리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

막10:42-45, 행2:42-47

금년에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금년을 ‘봉사대행진’의 해로 정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촌에 세워질 때가 1965년인데,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5달러였습니다. 실업률은 7.3%였습니다.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차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길 가운데 전차가 다니기 위한 전기줄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1965년에 월남전이 시작되면서, 국회에서 월남 파병 동의안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었고요, 또 그 해에 한일 협정 비준 동의안이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가결되어서, 학생들의 가두시위가 일어나고 위수령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평촌은 완전히 논밭으로 되어 있어서, 비오면, 장화가 없이는 다니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각종 병자들, 귀신들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말씀을 지난 주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평촌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2만 8천불이 되었습니다. 50년 전에 비하면, 엄청난 경제발전이 있었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의 양극화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실업률이 공식적으로는 3.2% 라고 나왔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의 실업률은 10%에 이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 실망, 낙심, 우울증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혈압과 심장병과 암과 치매와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회는 평촌지역에 처음 세워진 교회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매년 바자회와 또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으로 어려운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지극히 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대행진 사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전도대행진, 기도대행진, 예배대행진, 말씀대행진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영적생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미나를 통해서 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의 대행진사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도, 기도, 예배, 말씀, 봉사는 행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또 보다 계획적인 방법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대행진사역의 방법이 목회자들에게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제가 광주에 내려가서, 약 130분의 목회자들에게 우리 교회 대행진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대행진 사역은 미리 계획했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시작된 전도대행진이, 다른 여러 대행진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작년 말씀대행진에 이어서, 금년에 우리 교회는 봉사대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성경을 340만장을 읽고, 이제 전 교인이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모험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모험을 감수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갈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모험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오고,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편안한 comfort zone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행2장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다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자리에 다 같이 모이고, 다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임한 교회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바람 같이 임하셨는데, 그때 그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3천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47절에 보면, 그 교회에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교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를 섬기는 교회, 매일 성전에서, 집에서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날마다 믿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신 주님의 지상사명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가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옵니다. 교회로 온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그들이 성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선수는 달리는 것을 좋아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마라톤선수가 성적 때문에 의무감으로 달리기를 한다면,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로 일할 때, 제가 의무감으로 일한다면, 목회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목회가 저의 천직이고, 목회가 너무나 보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잃어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으며 잠잠하라 하였지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할 때, 그분들도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 주님의 명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위대한 계명이고, 또 하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위대한 사명, 주님의 지상사명은 마28장 19-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사랑-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이 교회에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로 유명한, 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의 담임목사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The Local Church is indeed the hope of the world. 그는 용기있는 리더십(Courageous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교회가 바르게 일을 할 때, (세상에) 지역교회 같은 기관은 없다. 그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그 능력은 엄청나며, 그 잠재력은 끝이 없다. 교회는 지역에 있는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삶이 무너진 이들을 치유한다. 교회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리를 놓고, 잊혀진 자, 억압받는 자, 환멸을 느끼는 자를 포용한다. 교회는 중독의 고리를 끊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 지역교회의 잠재력을 나는 다 파악할 수도 없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신앙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만 신앙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위와 매일의 삶과 행동에서 신앙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이 세상에 소망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참 소망은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고, 주님은 지역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에서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왕국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에 임명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요청은 얼핏 보기에 문제도 있는, 잘못된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요청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방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 두 사람은 감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실 각오를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은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요청은 시기적으로 잘못된 요청이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은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왕국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그 나라는 로마를 물리쳐 이길 것이고, 아마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관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이사야53장에서 예언한 그런 고난의 종 메시아 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난 예언을 들으면서도 무언가 막연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요청은 지극히 이기적 이요, 육신적이요, 세속적인 간구이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첫째가 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첫째가 되는 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가 되려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잔을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서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잔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어떤 곳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

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 홍해 속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에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 속에 깊이 빠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두 사람은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질문의 의미도 잘 모른 채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첫째가 되고 싶어했습니다.

전에 유명한 목회자이었던 George Truett 목사님이 텍사스의 엄청난 부자인 사람의 집 저녁식사에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그 주인은 목사님을 사방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 지평선에 보이는 유전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25년 전에는 나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이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저 끝까지가 다 내 땅입니다.” 그 사람은 반대편에 있는 엄청나게 큰 농토를 가리키며, “저 것도 다 내 땅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쪽에 있는 거대한 소 떼들을 보여주면서, “저것도 다 내 것입니다.” 말하고, 서쪽의 아름다운 숲을 가리키면서, “저 땅도 다 내 땅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그치고, 목사님이 자기의 엄청난 성공에 경의를 표하는 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트루엣 목사님은 그 사람의 어깨에 한 손을 얹고, 다른 손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그 동안 저 방향으로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돈과 지위와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많아져서 가족들을 더 잘 돌보

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에 초점을 둘수록,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쟁하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불과 1주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발언을 듣고,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다졌던 우애가 한 순간에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예심은 신앙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교만한 마음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순간적으로 깨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단결해서, 앞으로 다가 올 시련을 위해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2-4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너희 중에 첫째가 되려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생각은 죄니까 아예 버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큰 인물이 되려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되라. 너희는 첫째가 되어라. 1등이 되어라. 1등이 되는데, 섬기는 일에서 1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되는 일에서 1등이 되라. 주는 일에서 1등이 되고, 봉사하는 데서 1등이 되고, 희생하는 일에서 1등이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자가 되고, 그 사람이 가장 으뜸이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L. A.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서, 미국 대표 선발전이 있었는데, 결승전에서 한국계인 에스더 김양과 그의 친구인 케이포 양이 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포 양은 그 전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서 제대로 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 양이 부상한 친구와 싸울 수 없다고 하면서, 기권을 해서 자기 친구에게 올림픽 티켓을 양보했습니다. 그때 에스더와 케이포 두 사람이 서로 얼싸안고 우는 장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친구를 위해 올림픽을 양보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에스더가 자신이 없어서 출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NYT 기사까지 나와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대표 선발전의 결승전이었습니다. 에스더양은 결승전에 올라갈 만큼 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선한목자 장로교회에 그 대회 심판 위원장을 한 이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때 세계 연맹 심판 부위원장으로 시드니 올림픽에서 심판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누구보다도 그 때 상황을 잘 아는 분인데, 그 집사님 말씀이 에스더 김양은 그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고, 같은 도장에 다니는 케이포 양과 친한 친구인데, 실력은 두 사람이 똑같다고 할 만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생에 단 한번 밖에 없는 기회이고, 상대방은 부상을 당해서 뛸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서기만 해도 대표선수가 되는데,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어른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L. A.의 한인사회에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세들이 영어가 잘 안되니까, 2세나 1.5세들을 앞세워서 일을 합니다. 한번은 그런 2세 청년의 말을 들었습니다. 2세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겠다고 한인사회에 와서 일을 하다가 2-3년이 되기 전에 실망하고 떠나버리는데, 1세 지도자들이 일은 2세들을 시키고, 이름을 내고 얼굴을 낼 때에는 자기들만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1세들이 너무 명예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이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가진 것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의 어린 양처럼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명예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그의 섬김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하나 희생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이 가장 가치 있는 생애입니다. 그런 생이 가장 위대한 생애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는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대행진 헌신작성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꺼내 보실까요? 꺼내신 대행진 헌신작성서를 이번 주간 동안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①영적활동 -공예배는 주일예배, 찬양예배,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매일 개인기도와 말씀통독에 힘써주십시오.

②봉사활동 - 읽어보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주중에 봉사할 수 있는지, 주말에 봉사할 수 있는지, 주일에 봉사할 수 있는지- 선택하십시오.

③전도활동 -기도하고, 접촉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에 대해 말하고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전도활동입니다.

이 헌신작정을 위해, 한 주간 동안,

①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생각하십시오.

②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④ 지원해 주십시오.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엘머 타운스(Elmer Towns)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갱 멤버로 있던 한 청년이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 주일에 그는 생전처음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는 그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앞자리로 걸어 나가서, 두 번째 줄에 앉았을 때, 사람들은 힐끔 힐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눈에 띄는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단단하고, 수염이 길고, 머리도 길고, 검은 가죽잠바를 입고, 팔뚝에는 문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광고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영아부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영아부 어린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누구 자원하실 분 없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손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두 번째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아줄 교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하지만,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청년은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제가 영아부에 가서 아이들 기저귀를 갈아주기를 원하신다면,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어보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세 번째로 “영아부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영아부에서 일하실 분 없습니까?” 그때 그 오토바이 청년이 손을 번쩍 들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나서 영아부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불안해진 엄마들 30명이 영아부에서 일하겠다고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여입니다. (Ability -> Availability)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봉사하면,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Willow Creek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 처음 믿기 시작한 이가 짧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에 저의 인생은 한 가지 관심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아무런 목적도 열정도 없이 그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값싼 맥주와 값싼 오락을 즐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동안, 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포기할 것이 많지 않았고, 한번 그렇게 해 보자-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자, 나와 주님과 관계가 더 생생해졌습니다. 과거의 나는 그냥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나는 생애 목적을 발견하였고, 살아갈 이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내가 기대하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부요합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구경군의 자리를 떠난 것이 내가 한 가장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봉사의 유익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성취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봉사대행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마22:34-40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부활주일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과의사로 예일대 교수이었던 Dr. Richard Selzer는 *Mortal Lessons: Notes in the Art of Surgery- 죽음의 교훈들-수술의 기술에 대한 메모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은 그가 한 젊은 여자의 얼굴에서 종양을 제거했는데, 안타깝게도 수술 중에 얼굴의 신경하나를 잘라버려서, 그 여자의 입이 영구적으로 찌그러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그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녀와 젊은 남자가 그 방에 함께 있다. 그는 침대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이들이 누구인가-그 사람과 내가 만들어 놓은 찌그러진 입을 보며 나는 속으로 묻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갈망하듯이 서로를 touch 하고 있다. 젊은 여자가 말한다. “내 입이 항상 이럴 건가요?” 그녀가 묻는다. “그렇습니다. 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늘 그럴 겁니다.” 나는 대답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남자는 웃는다. 그리고 말한다. “괜찮은데. 나는 좋아. 귀엽게 보이기까지 해.” 그 순간 나는 그가 누군지를 알아본다. 상황을 이해하고 나는 고개를 낮춘다. 입이 달라져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는 몸을 굽혀서 그녀의 구부러진 입에 키스를 한다. 아주 가까이에서, 나는 그 남편이 그의 입술을 비틀어서 그녀의 찌그러진 입술에 맞추는 것을 본다. 그는 그들의 키스가 아직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랑입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계명은 구약성경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995년 과학자들은 허블 천체 망원경으로 북두칠성의 자루 바로 위에 있는 모래 한 알 사이즈의 비어있는 어두운 공간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허블 망원경의 정확도와 각도를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사진이 돌아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빈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천 개가 넘는 갤럭시들/은하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는 1250억개의 갤럭시들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갤럭시들은 수 백만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250억 x 수 백만. 저의 작고 유한한 머리로는 그 엄청난 숫자를 짐작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 수학에는 머리가 없기도 하지만 요즘 저는 곱하기 나누기는 커녕, 더하기 빼기도 잘 안 됩니다.

창조의 세계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렇게 크고, 복잡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려면, 얼마나 큰 능력과 상상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 위에 있는 복잡한 창조세상을 보기만 해도, 이것은 누군가, 엄청나게 지혜로운 Designer가 모든 것을 만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두뇌 하나만 보아도, 이런 정교한 컴퓨터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 Edwin Conklin 박사는 말하기를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인쇄소가 폭발했는데, 그 결과 사전이 만들어질 가능성과 비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지요.

우리가 창조세계의 복잡한 구조와 아름다움과 능력들을 볼 때, 그것은 도저히 아무 원인도 없이 우연히 이 우주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창조주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로니하게도, 무신론은 유신론보다도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어찌다가 있는 것이고, 자연이 멋대로 생겨나면서, 우리도 있게 된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동물들처럼 잠깐 살다가 사라지면 끝나는 생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일 아침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용감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

회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네로황제는 주후 64년 로마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함으로, 교회에 대해 엄청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무저항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약 250년 후, 주후 313년 로마는 기독교 국가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날 세계인구의 약 1/3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수평적으로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합쳐지면,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우리의 삶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면”이라는 주제로 설교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달 밖에 없는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명예가 중요하겠습니까? 남은 날이 얼마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봉사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대행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생활과 봉사생활, 전도생활에 힘쓰는 것입니다. 특히 봉사는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위로하는 일입니다.

②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을 돕는 것입니다.

③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지역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이나, 거리를 청소하는 일이나, 약한 교회를 돕는 일입니다.

④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봉사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경로대학이나 장애인 사역, 무료급식 사역 같은 봉사사역을 돕는 일입니다.

근래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Fellowship of the Woodlands, 우드랜드의 웰로십 교회는 성도들이 만 5천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휴스턴의 노숙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담요와 음식을 보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노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튼튼한 구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담임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기 전, 성도들에게 그런 사정을 말하고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가 신고 있는 구두를 벗어서 강단 앞에 놔두고 우리는 구두 없이 맨발로 나가서 많은 노숙자 남녀들이 매일 맨발로 거리를 다니는 느낌이 어떤 지를 경험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 제안에 응답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날에 4500켤레의 구두를 모았고, 휴스턴 지역 무숙자들이 여러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KBS TV 방송의 프로그램 중에 강연 100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이들이나 아름다

운 봉사로 사회에 공헌한 이들이 나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가끔 보기를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젠가 그 프로그램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 졌습니다. 그것은 소록도에서 치과 의사로 20년을 봉사한 오동찬씨의 이야기이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 슈바이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치과 의사 슈바이처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치과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치과대학과 인턴과정을 마치고, 의사들이 군대 대신에 공중보건의로 가는데, 지원할 곳을 보니까,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는 것을 보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위에 친구들이 만류를 했다고.

소록도에는 한센인들이 있는 데,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불렀지요. 그 무서운 곳에 왜 갈려고 하느냐, 가족들도 모두 놀라서 만류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말기 암을 앓고 계셨는데, 소록도로 간다는 말을 듣고, 우시면서 왜 네가 그런 곳에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가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간 다음에 가라고 하셨다고. 그때 오동찬씨는 어머니 제가 꼭 1년만 갔다 오겠습니다-말씀드리고 1995년에 소록도로 들어갔다고.

소록도에 갔더니 한센인 환자들이 오는데, 그들이 대개 아랫입술이 쳐져 있었습니다. 한센병의 후유증으로 아랫입술이 쳐져 있어서, 다닐 때 침이 흐르고, 손이 없는 분들은 팔뚝에 고무줄을 매고, 거기에 숟가락을 끼어 넣어서 식사를 하는데, 입술이 내려가 있으니까, 밥알이 떨어졌습니다. 오동찬씨는 고민하고 연구해서 6시간에 걸친 수술로 쳐진 입술을 올려서, 입술이 붙게 하고, 입을 벌려도 입술이 쳐지지 않게 해 주는 수술을 개발했는데, 약 400여명의 환자들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만 있겠다고 들어갔지만, 그곳에 있는 한센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놔두고 나올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20년간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오동찬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오동찬씨가 와 계십니다. 오동찬집사님입니다. 제가 잠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1. 이렇게 멀리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가지지 못하셨네요. 집사님 가족들은 소록도 교회를 나가시나요? (가족 소개를 해 주시고, 가족들과 소록도 한센인들과의 관계, 오늘 오신 소감 등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동찬 집사 답변 : 두 명의 딸과 아내와 함께 소록도에서 살며, 소록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큰 딸이 고2, 작은 딸이 중 3입니다. 그래서 소록도 인근 육지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 소록도에서 20년을 지내셨는데, 20년의 세월이 어땠습니까? 많이 힘들었나요? (소록도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며, 그 분들과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오동찬 집사 답변 :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소록도 있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해 주었다 라기 보다는 소록도에 계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살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3. 집사님께서 다른 사람은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소록도에 가신 것이나,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봉사하신 것은, 아무래도 집사님의 신앙이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집사님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게 된 계기나, 특별한 은혜의 경험 등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동찬 집사 답변 :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기암에 걸렸을 때 어머니 수술 잘 되고 5년 만 더 살게 해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겠다고 서원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서 20년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조그만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4. 우리 일반 사람들은 한센병에 대해서 막연하게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센인들을 위해서 20년을 일해오시면서 저희에게나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동찬 집사 답변 : 한센인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은 유전병

이 아니라,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약한 병입니다. 약을 3개월만 먹고, 주사를 1번만 맞아도 다 치료가 됩니다. 다만 과거에 약이 없고, 늦게 치료하다보니 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분들은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령 레위기 13장 14절 같은 경우 한센의 잘못된 해석이 있는데, 거기에 해석된 용어가 한센병이 아니라, 백반증이라든지, 만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인데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5. 아마 집사님이 소록도에 가실 때, 이렇게 20년이나 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동찬 집사 답변 : 우리나라는 한센사역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6,000만명, 인도에 1억명, 브라질 인구의 10%가 한센병인데, 외국에 있는 한센인 마을에서 살며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랑하는 집사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집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딱 한번 뿐인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을 위해 잘 준비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순간 밖에 안 되는 이 세상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부록 II 봉사대행진 조직 >

봉사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상철010-3068-7075	서기	서인순010-7185-4466
복지부장	송옥석010-6562-3073	복지부팀장	이정수010-7185-4466
경로대학부장	김정희010-7501-1987	경로대학팀장	변상식010-5731-1100
경조부장	기길운010-9023-0953	장례팀장	장정수010-9141-3881
조가팀장	정순남010-9632-8246	예식부장	김연례010-6553-5349
예식준비팀장	이필자010-6350-8651	만나팀장	민은아010-6745-4927
봉사부장	김진성010-2507-2821	봉사팀장	박동화010-9958-3805
식당부장	정복순010-9062-7378	식당팀장	구영선010-9271-1196
위원	강노승010-6392-0056, 민태의010-9726-9784, 송주희010-5765-9903, 최광복010-8905-8133		

봉사대행진 사역팀 섬김이

사역팀	팀장	팀원		비고
봉사대행진부장	윤영복010-9961-1952	총무	김태영010-9342-5098	
서기	하성용010-6334-1942	회계	서인순010-7185-4466	
복지시설팀	지상운010-7292-6911	오석진010-4746-7772, 박종숙010-8726-8745		
사랑의쌀독팀	박윤규010-7309-3397	여인학010-9356-7129, 오욱자010-5626-1980		
경로당지원팀	권숙희010-7459-6794	기길운010-9023-0953, 김정희010-7501-1987		
이미용사역팀	최경애010-2739-2046	변상식010-5731-1100, 유옥준010-3157-7248		
지역청소팀	이철규010-5266-9903	임종성010-3402-9068,		
설비팀	유정홍010-6769-0153	방후원010-4736-5984,		
호스피스팀	최인자010-6409-9179	강용희010-3080-2195, 이정숙010-4850-2309		
병원선교팀	서은옥010-8551-3269	채희수010-3257-1364, 권명자010-3448-9499		
교회섬김사역팀	곽노진010-9027-1452	김경호010-5229-7977, 이행임010-3785-5379		
차량지원팀	배종찬010-9703-6552	심광섭010-8860-7023, 이재준010-8630-3417		
봉사자관리팀	정순남010-9632-8246	김차호010-3890-2595, 김지혜010-3220-3273		
남성사역팀	김구섭010-5277-8246	총남선교회 임원 및 회장단		

교구별 사역 담당자

	1	2	3	4	5	6	7	8
복지시설	민은아	평문숙	김안자	양승혜	이소영	염계숙	김영자	이혜숙
쌀독	김은영	윤주길	차미경	정경미	이은옥	유현숙	방승기	오현자
지역청소	장명선	김영옥	심상이	한상돈	박경희	박소영	김호선	김진자
경로당	오숙자	강유향	최수연	정복순	박경인	김영자	김영희	윤경순
교회섬김	임은경	오충환	황은희	최영이	윤수정	이정은	조영민	배옥연

50주년 회년의 해

영적 생활, 봉사 생활, 진도 생활로 회년을 선포하기 위한 개인 점검표

- 예배의 경우, 주일 낮 주일 찬양, 그리고 기도회(수요, 금요 새벽)를 각 회회별로 하여 한 주간 최대 3회로 표기합니다.
- 진도생활은 개인진도 및 수요교구진도, 주일진도, 병원진도 등 다양한 진도활동에 참여한 것을 말하며, 합계에는 결산자 수를 기록합니다.

영적 생활	성경기도 (기도○표)	기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영적 생활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예배(○표)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봉사생활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진도생활(○표)										

영적 생활	성경기도 (기도○표)	기간								
		10주	11주	12주	13주	14주	15주	16주	17주	합계
영적 생활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종 장
예배(○표)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주일 낮, 오후 기도회	예배 회
봉사생활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봉사 시간
진도생활(○표)										진도 명

< 부록 Ⅲ 봉사대행진 개인점검표 >

<p>◆ 헌신서약</p> <p>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이웃을 향한 다음과 같으므로 드러나야 함을 고백하며 금년 2015년에 회년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p> <p>◆ 봉사대행진 헌신 과정</p> <p>1. 나는 영적생활로 회년을 선포하겠습니다. ▶ 성경통독 및 기도 () ▶ 예배-(필수) 주일 낮 및 오후() ▶ 기도회-(선택) 수요(), 금요(), 새벽()</p> <p>2. 나는 봉사생활로 회년을 선포하겠습니다. ▶ 봉사횟수-월1회() 2회() 1회() ▶ 봉사시간-주중() 주말() 주일()</p> <p>3. 나는 전도생활로 회년을 선포하겠습니다. ▶ 전도목표-_____명 ▶ 전도활동-개인전도() 교구전도대() 주일전도대()</p> <table border="1" data-bbox="568 283 657 619"> <tr> <td>교구/구역</td> <td></td> </tr> <tr> <td>이름/직분</td> <td></td> </tr> </table>	교구/구역		이름/직분		<p>◆ 나의참감목표</p> <p>1.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2015년 성경통독 1회)</p> <p>2. 매주 예배생활에 힘쓴다. (주일 낮예배, 오후찬양예배, 기도회)</p> <p>3. 매주 봉사생활에 적극 참여한다. (개인봉사, 교구활동, 기관 및 시설 방문 봉사, 지역사회참감, 교회참감)</p> <p>4. 매주 전도생활에 힘쓴다. (1명 이상 전도)</p> <p>◆ 봉사생활의 구분(4가지 영역)</p> <p>I. "교구 돌봄 사역" : 교구 내 경제적 여건과 삶의 형편은 물론, 목회적 관심과 사랑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다.</p> <p>II. "기관 및 시설 봉사 사역" : 부지기반 및 시설을 방문하여 정기적인 봉사를 통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한다.</p> <p>III. "지역사회 섬김사역" :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섬기며 봉사한다.</p> <p>IV. "교회참감사역" : 온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깨달아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동참하며 교회를 섬긴다.</p>	<p>2015 봉사대행진 전반기 세상을 섬기는 교회</p> <p>삼으로 회년을 선포하자!</p> <p>2015. 2. 1 ~ 5. 31</p> <p>영적 생활로 회년을 선포하자 봉사 생활로 회년을 선포하자 전도 생활로 회년을 선포하자</p> <p>〈성경에는 예수님만〉 대한예수교 평촌교회 장로회 http://www.pjungchon.or.kr 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90(평촌동) T.ℓ : 031-421-0205</p>	<p>기도제목</p> <p>1. _____</p> <p>2. _____</p> <p>3. _____</p> <p>4. _____</p> <p>5. _____</p> <p>6. _____</p> <p>7. _____</p> <p>전도대상자</p> <p>1. _____</p> <p>2. _____</p> <p>3. _____</p>
교구/구역							
이름/직분							

※ 전체 크기 : 가로 36cm, 세로 18cm... 4단으로 접으려 합니다.
 전체적으로 봉사대행진에 어울리도록 결면 표지에 해당하는 곳(3번째 면)에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제자를 발 씻기는 모습, or 수건과 대야 등) 암튼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디자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록 IV 봉사대행진 실천표 >

2015 봉사대행진 실천표				구역: _____		성명: _____	
성경	예배	대외 봉사	교회 내 봉사		전도 생활 (O, X)		
			돌봄 구역	기존 구역			
_____장	주일낮 () 오후찬양 () 기도회 ()	_____시간 (교구돌봄, 시설방문, 지역섬김 봉사)	_____시간	_____시간			

※ 돌봄구역 예시 : 경도대학, 소양부, 예사랑부, 경도식당, 주일식당, 아카데미, 주차 및 차량, 교구전도, 주일전도, 바나바 등

< 부록 V 봉사대행진 구역별봉사사역표 >

___ 교구 ___ 구역 봉사대행진 사역표

구역장 : _____

권찰 : _____

I. 봉사사역 종류

영역	구역	개인
1	교구돌봄	노인돌봄, 반찬배달, 심방, 전도대상자돌봄, 김장
2	기관봉사	사랑채노인복지관, 희망사랑방,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푸른요양원, 관악장애인복지관, 부흥복지관
3	지역섬김	사랑의쌀독, 경로당, 지역청소, 노회 약한 교회 돕기
4	교회섬김	교회청소, 소망부, 식당봉사, 주일전도

II. 사역 소개

i) 교구돌봄 : 각 교구에서 자율적으로 실시

ii) 기관봉사

1. 사랑채 노인복지관 - 2, 3교구	2. 희망사랑방(노숙인쉼터) - 1, 7교구
위치 : 의왕시 내손동 644-1 (내손동주민센터) 내용 : 주방 조리보조, 배식, 설거지 등 시간 : 금요일 11:00~14:00 인원 : 최소 5명 연락처 : 425-3676 담당자 신중훈	위치 : 만안구 만안로 271 2층 (안양역 앞) 내용 : 주방 조리보조, 무료급식봉사 시간 : 수요일 오후 3~5시(2월 중 2:30) 인원 : 최소 5명 연락처 : 446-0990 안승영목사
3.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 - 4교구	4. 부흥종합복지관 - 6교구
위치 : 동안구 비산동 570-9 (비산사거리) ① 신생아 돌보기(돌 이전) 목욕시키고 우유 먹이며 돌보기 ② 4세 아동 돌보기 상처받고 사랑에 목마른 아이 돌보기 시간 : 목요일 9:30~12:00 인원 : 각 팀당 5명 연락처 : 445-7188 담당자 이지훈	위치 : 동안구 달안로 39 (동안구청 뒤) 내용 : 조리 및 배식봉사 시간 : 넷째 목요일 9:30~1:30(& 다섯째 주간) 인원 : 6명 연락처 : 382-7557 담당자 김난희

<p>5. 푸른 요양원 - 1, 8교구</p>	<p>6.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 5교구</p>
<p>위치 : 동안구 경수대로 518 (안양교도소 옆) 내용 : 말벗, 책읽어드리기, 노래, 마사지 등 시간 : 금요일 2:30~3:30 인원 : 최소 5명(두세팀 가능) 연락처 : 455-3121 담당자 민경선</p>	<p>위치 : 만안구 경수대로 1132(안양유원지 고가앞) ① 장애우 프로그램보조 시간 : 금요일 4:00(4:30)~6:00 인원 : 4명(2인 1조 2팀) ② 말반찬배달(자차 이용) 시간 : 넷째 목 4시~금 자유로운 시간 인원 : 5명 연락처 : 472-7774 담당자 임선정</p>

※ **어르신 대상으로한 프로그램**인/내 위생, 클레이, 종이접기, 자압 등이나 **장애우 체조** 등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은 따로 연락 바랍니다.

iii) 지역섬김

<p>1. 사랑의 쌀독</p>	<p>2. 경로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당 2층 로비에 있는 사랑의 쌀독에 쌀을 가져와 채우도록 한다. - 모아진 쌀을 일주일에 한번씩 포장을 하여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 내에 있는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여 관계를 맺으며 청소와 안마 등을 해드리며 섬긴다. - 필요하다면 어르신들의 생일파티 등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p>3. 지역청소</p>	<p>4. 노회내 약한 교회 돕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교구 내에 있는 지역이나 교회 인근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을 청소할 수 있다. - 나아가 중앙공원, 학의천, 평촌/범계역 주변 등도 포함하며 봉사시 준비된 조끼를 착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회 내의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등 연약한 곳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역. - 함께 전도하거나 주일 오후찬양예배 등을 함께 드려주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도록 한다.

iv) 교회섬김

<p>1. 교회청소</p>	<p>2. 소망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일이나 주일 오후 시간에 교회와 아가페문화 센터를 돌아보며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할 수 있다. - 필요시 봄, 가을을 맞아 대청소를 실시할 때에 참여하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2~6시, 소망부 모임 시 이를 지원하고 돕는다. - 장애우의 이동 및 활동보조, 차량운행시 동행하여 승하차를 돕는다.
<p>3. 식당봉사</p>	<p>4. 주일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경로식당과 주일 주방 봉사는 물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시 식당봉사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주일 이루어지는 주일 전도팀에 동참하여 인근지역에 나가 복음을 전한다.

Ⅲ. 구역봉사일정

월	일	사역분야	사역명	봉사자	사역준비	연락처
예)	3	교구돌봄	반찬배달	○ __, △ __	오징어무침, 계란말이	T. _____
	6	기관봉사	요양원	□ __, ◇ __	청결한 위생상태	T. _____
2						
3						
4						
5						

참고문헌

1. 국내서적

-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2021
- 최윤식,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시나리오』 서울:생명의 말씀사, 2020
- 노영상, 『마을교회 마을목회』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 조용훈, 『마을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서울:도서출판 동연, 2017
- 평촌교회 50년사 편찬위원회, 『평촌교회 50년사 화보집』 서울:매거진 아가페,
2015
- 박종삼 외, 『마을목회와 지역사회복지』 서울:동연, 2019
- 송인규, 『성경은 공동체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서울:IVP, 1996

2. 번역서적

- 자크 엘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문장 역, 서울:도서출판 대장간, 1995
- 한스 쾅, 『교회』 정지련 역, 서울:한들출판사, 2007
- 게르하르트 로핑크,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정한교 역, 서울:분도출판사,
2005
- 웨인 그루뎀,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 하』 노진준 역, 서울:은성출판사, 2009
- 팀 켈러, 『일과 영성』 최종훈 역, 서울:두란노출판사, 2013
- 존 스토티, 『살아 있는 교회』 신현기 역, 서울:IVP 출판사, 2007
- 쉐일러 매튜스, 『예수 운동과 혁명』 박현덕 역, 안양:도서출판 대장간, 1993
- 고든 루이스, 브루스 데머리스트, 『통합신학 III』 김귀탁 역, 서울:부흥과개혁사,
2011

짐 푸트먼, 『교회는 팀이다』 김태곤 역, 서울:생명의말씀사, 2016

마이클 프로스트, 앨런 허쉬, 『새로운 교회가 온다』 지성근 역, 서울:IVP 출판사,
2015

로버트뱅크스,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신현기 역, 서울:IVP 출판사,
2018

팀 체스터, 스티브 티미스, 『교회다움』 김경아 역, 서울:IVP 출판사, 2012

팀 체스터, 스티브 티미스, 『일상교회』 신대현 역, 서울:IVP 출판사, 2015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좋은씨앗,
2009

3. 인터넷, 기타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society&wr_id=95

<https://www.anyang.go.kr/dongan/contents.do?key=1092>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6>

<https://www.agapectr.org/sub06/sub01.php>

<https://www.kfhi.or.kr/about/introduce/brand>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Hui Soo Choi

Place and Date of Birth: Daegu, South Korea, December 12, 1978

Parent`s Names: Joung Pil Choi and Tae Nam Goo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Yeongcheon High School 178-1, Yasa-dong, Yeongcheon-si, Gyeongsangbuk-do, Korea	Diploma	Feb 14, 1997
Collegiate: Yeungnam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Korea	B.A	Feb 21, 2004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14-1, Dae-dong, Gyeongsan-si, Gyeongsangbuk-do, Korea	M. Div	Feb 14, 200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최희수

Signature

Hui Soo Choi

Name typed

March 09, 2024

date